



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



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

발간사

세계유산은 인류 문화·자연 다양성 그 자체이다. 세계자연유산에는 이 지구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세계문화유산에는 인류의 노력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에서는 인권, 평화, 환경, 문화 다양성 등과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세계유산을 단순한 관광의 대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체험, 토론, 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유산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즉 세계유산을 통해 국제이해,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보편적 가치를 배우고 내재화하도록 돕는 교재이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세계유산을 자국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의 우수함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자칫 협소한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컸다.

세계유산 지정의 취지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담긴 유산을 보존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 평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세계유산교육을 하면, 문화지식의 습득은 물론이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세계시민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2012년부터 세계유산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으로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기구입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유네스코 교육 2030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담긴
세계시민교육을 확산·발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호연결성에 관한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세계시민교육 확산에 힘써왔다. 2016년에는 다문화 사회인 말레이시아 페낭, 2017년에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의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의식과 세계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자료개발에 이어서, 올해에는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세계유산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한국 교육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한국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이번 세계시민교육 자료는 제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주도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를 세계시민교육으로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특히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소개하는 시도를 하였다.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자연유산으로서 잘 보존되어왔는데, 이러한 보존은 '최고의 자연현상이나 자연미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제주 특유의 관습과 행동이 스민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그 문화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문화'다.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해녀의 물질 시기를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바다 생태계를 만들고, 물질로 얻은 이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로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또한, 제주 해녀문화는 제주의 지형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보존하려는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담고 있다. 다양한 세계 이슈에 대한 갈등과 이에 대한 조정·해결방법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현대 세계에서 제주 해녀문화 속 공동체의식은 공유와 협력이라는 미래 발전적 가치를 일깨워준다. 이 책의 세계시민교육은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제주 해녀문화의 공동체 의식에 주목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학교 현장의 교사가 세계유산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동시에 하고자 할 때 학습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이 세계유산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교재를 개발하는 데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연구진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정 우 탁

목 차

발간사	05
머리말	10
I. 세계유산과 세계시민교육	
1.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14
2. 세계유산의 이해	17
1) 세계유산의 개념과 가치	17
2) 한국의 세계유산	21
3. 세계유산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관계	23
1) 세계유산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23
2) 세계유산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	23
3)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세계유산교육의 접근 방법	25
II.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1. 제주도의 세계유산	39
1)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40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문화	47
2. 제주 세계유산의 의미와 교육 프로그램	57

III. 제주 세계유산교육 수업가이드

1. 제주 세계유산교육의 영역	73
1) 제주 세계유산 교수-학습 과정안 구성	73
2) 제주 세계유산교육의 방향	73
2.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1: 제주 세계자연유산	74
3.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2: 제주 해녀문화	96

IV. 세계유산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참고문헌	116
------------	-----



머리말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세계시민은 우리 자신을 지구촌에서 사는 존재로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가, 문화 간의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다. 세계시민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관점, 스케일의 범주에 따른 다중 정체성, 문화, 차이를 비롯한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한다. 다양성의 존중은 곧 다른 사람과 문화, 관점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 관용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은 인권, 평화, 지속가능성, 사회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세계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이끈다.

세계유산은 지구와 인류가 만든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담고 있다. 세계유산은 여러 국가·민족의 역사적 정체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평화 등을 간직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국가, 민족 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문화와 자연을 담고 있으며, 인류의 고귀한 문화와 자연을 미래세대로 이어줄 존재이자 문화 및 문명 간 이해를 담은 평화의 담지체이다. 이렇듯 세계유산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세계시민은 세계유산을 만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책은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으로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세계유산의 가진 정체성을 이해하고, 세계유산의 자연적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식하여,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세계유산의 이해, 세계유산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세계유산교육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됨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자연유산인 ‘화산섬과 용암동굴’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를 살펴본다.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지닌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제주 해녀문화가 지닌 공동체 정신, 공유경제, 지속가능한 삶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제3장에서는 학교 교육현장의 교사가 제주의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의 길라잡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제 기반 통합적 교수-학습방법, 현장체험학습 활용 교수-학습방법, 문제해결학습 교수-학습방법을 이용한 세계유산 교수학습과정안과 실행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다룬다. 세계유산 수업 시, 가치 상층에 유의하고,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이 글로벌리즘, 홀리스틱 접근 및 변혁적 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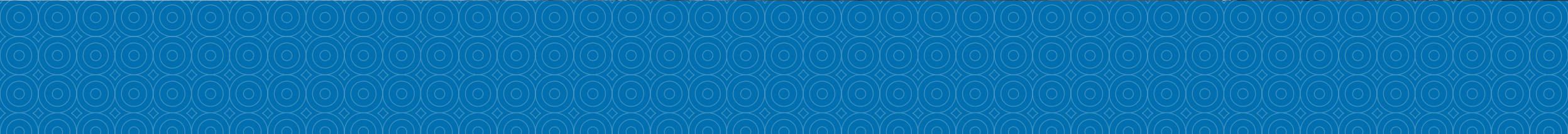
이 책은 교사가 학교 안팎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 역사, 일반사회, 과학, 사회, 예술 등 모든 교과목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사가 이 책의 수업방법을 학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교사가 세계유산을 토대로 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이 그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길 소망한다.



I

세계유산과 세계시민교육

- 1.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 2. 세계유산의 이해
- 3. 세계유산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관계



I 세계유산과 세계시민교육

1.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세계시민성의 개념은 ‘민족국가를 초월한 시민의식’, ‘세계시민주의’, ‘지구시민의식’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한경구 외, 2015, 37). 세계시민성에 대한 개념 정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들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 서로의 문화를 향유하고 존중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학습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삼는다(한경구 외, 2015, 37). 즉,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더 풍요롭고, 더 정의로우며, 더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4년에 ‘21세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보고서(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를 발간하였다. 여기서 유네스코는 세계시민성을 국가 간 경제, 문화,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계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서 글로벌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인류에의 소속감(UNESCO, 2014, 14)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의 도전과제들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유네스코는 학습자가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다중적 시민성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키우는 데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세계시민성을 키우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UNESCO, 2014, 17)을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보편적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기술, 상호작용 기술, 협업적, 실천적 행동 구현 노력 등으로 제시하였다(표 1 참조).

표 1.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성의 핵심역량

-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인종, 문화, 종교, 계급 등의 차이점을 초월하는 공동의 ‘집단 정체성’에 기초한 태도(예: 공통 인류에 대한 소속감, 다양성 존중)
- 보편적인 핵심 가치(예: 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차별철폐, 관용) 및 글로벌 이슈와 경향에 대한 깊은 이해(예: 세계화 과정의 이해, 상호 의존/상호 연계성, 세계적 과제, 미래의 주요 개념으로서 지속 가능성)
-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들(예: 다관점에 기반한 추론 및 문제 해결 기술)
- 공감, 갈등 해결과 같은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기술, 그리고 다양한 언어, 문화,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같은 비인지적 기능들(글로벌 공감, 일체감)
-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안 탐색을 위한 협업과 실천적 행동,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력(예: 책임감, 의사결정기술)

또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학습자 중심, 홀리스틱 접근, 대화와 소통 중심, 문제해결 중심, 인류의 보편적 가치 형성의 규범, 그리고 행동 역량 함양 등의 구체적인 세계시민교육 페다고지를 제시하였다(UNESCO, 2014, 22)(그림 1,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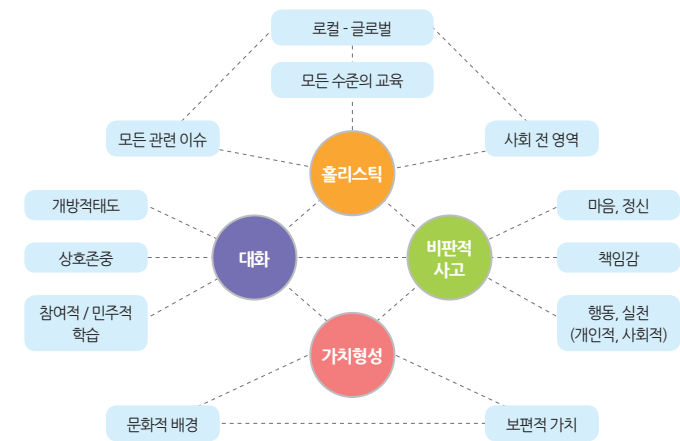


그림 1.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페다고지

(출처: Cabezudo, 2013)

표 2.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페다고지 지침

•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 세계시민교육은 홀리스틱 접근이어야 하며, 로컬의 과제, 공동의 관심사 그리고 책임감을 인식시켜야 한다.
• 대화와 상호 존중의 학습이어야 한다.
• 문화적 규범, 국가 정책 그리고 보편적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인식시켜야 한다.
•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이어야 한다.
• 행동 역량을 발달시켜야 한다.

(출처: UNESCO, 2014)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UNESCO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목표로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을 설정하였다(UNESCO, 2015). 인지적 영역에서는 지식 정보와 비판적 문해력 습득,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함양, 행동적 영역에서는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었으며, 관련된 세부주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표 3 참조).

표 3.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및 학습주제

목표 영역	핵심 개념	
	내용	학습주제
인지적 영역	지역사회, 국가, 범지역, 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1. 지역, 국가, 세계의 체계와 구조 2.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
사회·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7. 개인적,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 행동하기

(출처: UNESCO(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 2015, 27-29.)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를 직시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참여 지향적 교육, 문제해결 중심 교육, 적극적인 실천, 평생교육을 지향한다.

2. 세계유산의 이해

1) 세계유산의 개념과 가치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으로 정의한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문화재를 의미한다. 세계유산은 한 민족, 한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인이 누리고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유산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져야 하는 지속가능성을 지니고 있다(이혜은, 2005, 13). 그리고 세계유산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세계유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세계유산일지라도 세계유산은 위치에 상관없이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발굴,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고, 1975년 세계유산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보호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표 4 참조). 문화유산은 기념비적, 고고학적,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 건물군, 그리고 사람에 의해 또는 사람과 자연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미학적, 민족학적 그리고 인류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포함

하며,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 민족적, 인류학적, 심미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 건물, 유적지 등을 지칭한다. 자연유산은 지구의 진화 단계를 나타내거나 초자연적인 자연현상, 지질학적, 생물학적 진화나 인간과의 상호관련성을 자아내는 뚜렷한 현상,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 서식지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합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유산이다.

표 4. 세계유산의 정의

구분	내용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물 건축물, 기념비적 조각과 회화, 고고학적 성격의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그리고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여러 요소의 복합체 건물군 독립되거나 연결된 건물들의 군집체로서, 그의 건축, 동질성 또는 경관에서의 장소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유적지 사람의 소산 또는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 미학, 민족학 또는 인류학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지질학적·지형학적 생성물,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정확하게 구획된 지역으로 학술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자연 유적지 또는 정확하게 구획된 자연 지역으로, 학술,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복합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은 '문화 및 자연 복합유산'으로 간주함.

(출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 2017, 37-38.)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10가지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10가지 중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의 평가 기준이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의 평가 기준에 해당한다(표 5 참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평가 기준이 다른데, 문화유산은 인류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보여준 인류의 창의성, 기술, 지혜, 보편적 가치 등이 평가 기준인 반면, 자연유산은 자연미, 생태학적 가치 등 자연으로서의 완전성(integrity)이 주요 평가기준이다(이지혜 외, 2016, 410).

표 5. 세계유산의 평가 기준

구분	기준	
문화유산	I	•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에 해당해야 한다.
	II	•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IV	•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V	•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경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VI	•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연유산	VII	•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VIII	•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특징물 등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IX	•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적·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X	•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상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 서식지를 포함해야 한다.

(출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 2017, 53-54.)

허권(2012, 8)은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각종 협약과 권고안의 분석을 토대로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인류유산의 가치와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 제시하였다(그림 2).

첫째, 세계유산은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심미적 가치를 대변한다. 세계유산은 평가 기준에서도 제시한 바와 지역성, 민족성, 국가 정체성을 보여준다. 세계유산교육은 지역적,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세계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향유할 수 있다. 둘째, 문화유산은 창조의 원동력이다. 문화유산은 과거 사람들이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조적 생각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창조는 늘 과거의 유산과 과거 사람들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과거 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그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문화유산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 인류 유산은 지속가능발전의 토대가 된다. 인류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과거 인간과 자연 간 조화로운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현대적 재창조는 자연환경과의 공존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넷째, 인류유산은 평화와 문명 간 대화의 촉매제이다. 문화유산은 인간과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문명 간 대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민족 간 교류가 이어져 왔다. 교류와 문명 간 대화는 문화유산 창출의 토대가 되었으며 문화유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화유산은 국가 간 전쟁과 갈등에 의해 훼손, 파괴, 소실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획일화 현상은 문화 간 우열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인류유산은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아닌 평화와 문명 간 대화를 촉진하는 상징물이어야 한다. 다섯째, 세계유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세계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정의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유산에는 자유, 평화, 정의,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전체가 인간적인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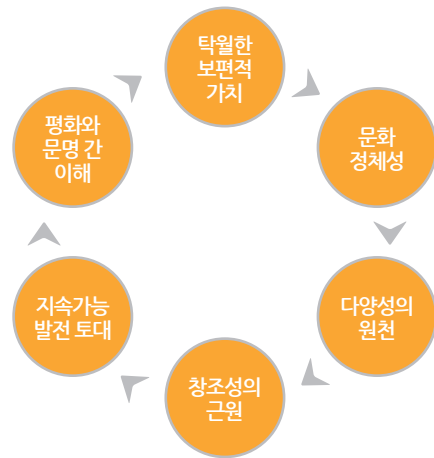


그림 2. 세계문화유산의 핵심가치
(출처: 허권, 2012, 8.)

2) 한국의 세계유산

2018년 8월 현재 세계유산은 총 1,092점이며 전 세계 167개국에 분포되어 있다. 이 중 문화유산이 845점, 자연유산이 209점, 복합유산이 38점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석굴암·불국사(1995년), 창덕궁(1997년), 화성(1997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으로 총 13점이 있다(표 6 참조).

표 6. 한국의 세계유산과 그 등재 기준

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가치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v):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 대장경판을 오랜 기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자연통풍과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기준 (vi): 고려 시대의 국가사업으로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그 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 판각 기술의 예술성과 기술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 불교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짐.
종묘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v): 죽은 자들을 위한 혼령의 세계를 조영한 건축답게 건물의 배치, 공간 구성, 건축 형식과 재료에서 절제, 단아함, 신성함, 엄숙함, 영속성을 느낄 수 있음.
석굴암과 불국사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 불교 건축과 조각으로 경주 토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국 고대 불교예술의 정수를 보여 주는 걸작. 기준 (iv):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석굴과 불상 조각에 나타난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 불국사는 석조 기반과 목조 건축이 잘 조화된 고대 한국 사찰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 그 가치가 두드러짐.
창덕궁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i): 궁궐의 정문인 돈화문은 서남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으며, 정문의 진입로에서 직각으로 두 차례 방향을 틀어야 정전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로 건물과 주변 환경이 잘 조화된 궁궐 배치를 보임. 기준 (iii): 창덕궁은 전통 풍수지리 사상과 조선왕조가 정치적 이념으로 삼은 유교가 적절히 조화된 대표적인 건축물. 기준 (iv): 창덕궁은 원래의 자연 지형을 존중하기 위해, 궁궐 건축의 전통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창조적 변형을 더하여 지어졌다는 점에서 탁월함.
화성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i): 화성 축조에 사용된 새로운 장비와 재료의 발달은 동서양 과학기술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기준 (iii): 전통적인 성곽 축조 기법을 견승하면서 군사, 행정,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i):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불교 건축 및 생활 문화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다수 분포함. 기준 (iii): 경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은 신라 문화의 탁월함을 보여줌.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ii):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기원전 1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례 및 제례를 위한 거석문화 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vii):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폭포, 암석, 그리고 주상 절리(柱狀節理) 절벽, 분화구에 호수가 있는 우뚝 솟은 정상에 포함된 한라산의 경관과 미적 매력 기준 (viii): 제주도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움직이지 않는 대륙 지각판 위 열점(熱點, hot spot)에 생성된 대규모 순상 화산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님.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다른 용암 동굴 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중유석같이 부수적으로 생겨난 탄산염 동굴생성물로 이뤄짐. 성산일출봉 응회암은 구조적인 특성과 퇴적 특성이 드러나는 이례적인 곳으로, 얕은 바다에서의 수중 화산 폭발 과정을 알 수 있는 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음.
조선 왕릉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ii):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제례를 위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건한 장소가 창조됨. 기준 (iv): 조선 왕릉은 건축의 조화로운 총체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임. 기준 (vi): 조선 왕릉은 규범화된 의식을 통한 제례의 살아 있는 전통과 직접 관련됨.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ii): 마을의 입지와 배치와 가옥의 전통에서 두 마을은 500여 년 동안 엄격한 유교의 이상을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던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를 가장 잘 보여 줌. 기준 (iv): 양반과 평민 가옥들의 전체적인 배치와 개별적 배치의 조화는 조선 왕조의 힘과 영향력이 문화와 철학적 전통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적 전통에도 배어 있음을 보여줌.
남한산성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ii): 남한산성의 산성 체계는 17세기에 극동 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 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함. 기준 (iv): 남한산성은 요새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i): 백제의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 기준 (iii):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iii), (iv): 산사는 한국의 산지형 불교 사찰의 유형을 대표하는 7개의 사찰로 구성된 연속 유산. 통도사, 부석사, 봉경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로 구성된 신청 유산은 공간 조성에서 한국 불교의 개방성을 대표하면서, 승가공동체의 신앙·수행·일상생활 중심지이자 승원으로서는 기능을 유지함.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의 세계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3. 세계유산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관계

1) 세계유산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교육은 1994년 '세계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허권, 2012, 13). 세계유산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세계유산을 통해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환경의 형성,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 등 일련의 커다란 글로벌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상호교류의 폭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도 커지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교육의 필요성은 더 강조되었다. 이에 1993년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및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실천요강(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이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 더 강조되기도 하였다(강순원 외, 2017, 295). 세계유산교육도 청소년들이 인류공동의 유산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보편적 가치, 인간 삶의 환경, 그리고 인류 문화의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2) 세계유산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

세계유산교육은 후속세대 학습자로 하여금 세계유산의 가치와 세계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지역, 국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참여시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며, 나아가 자문화 정체성을 찾고, 인류공동 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생태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둔다(허권, 2012; UNESCO, 1998). 학생들은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영역인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서 세계유산을 학습함으로써 세계유산교육이 지향하는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표 7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영역에서는 유산과 세계유산의 개념, 세계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세계유산이 직면한 위험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 인식,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존중감, 세계유산 보호·보존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지속가능 지구촌을 위한 적극적 기여 태도 형성 등

을 함양한다. 행동적 영역에서는 세계유산을 보호·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함양,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표 7. 세계유산교육의 목표와 성취 내용

목표 영역	성취 내용
인지적 영역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과 세계유산의 개념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세계유산이 직면한 위협 세계유산협약의 중요성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세계유산 보존의 필수적 과정 세계유산의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사람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 세계유산 세계유산에 내재된 평화, 인권, 민주주의,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
사회·정서적 영역 (가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 내면화 지구적 차원의 문화적, 자연적 다양성 인식과 존중 지역 문화의 우수한 가치와 정체성 확인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세계유산의 감상과 보존의 필요성 이해 세계유산 보호, 보존을 위한 방안 수용과 존중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생활 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안 모색
행동적 영역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유산과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결정 능력 발휘 세계유산 관련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기법을 활용함.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제 토론, 토의에 참여함.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리더십 함양, 발휘 책임있는 자세로 세계유산 방문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 마련

(출처: UNESCO, 2007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세계유산교육은 네 가지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김현욱·김정민, 2014; 이지혜 외, 2016)(그림 3 참조). 첫째는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world heritage)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에서는 세계유산의 위치, 등록 배경, 가치 등을 학습하여 세계유산 자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학습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유산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world heritage)이다. 이는 세계유산의 보존하여 지속적으로 전승하고자 하는 태도, 세계유산에 대한 태도 등의 교육이 포함된다. 셋째, 세계유

산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world heritage)이다. 이는 세계유산을 통해 국제이해, 평화, 인권, 환경, 문화 등을 인식하고 내면의 가치를 형성하는 교육이다. 넷째, 세계유산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world heritage)이다. 이는 각 교과 또는 교육 영역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유산을 소재 또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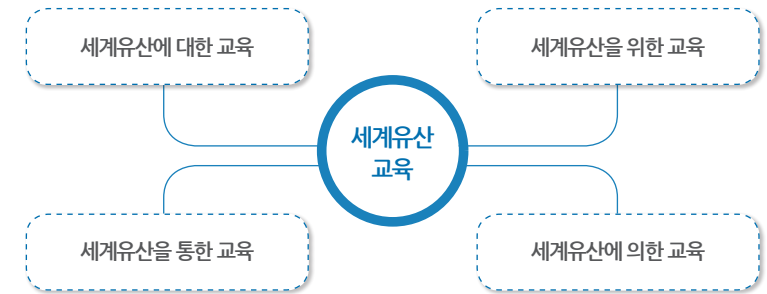


그림 3. 세계유산 교육 유형

인류의 보편적 탁월한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은 글로벌 차원에서 보호·보존의 필요성이 공인된 유산인 만큼, 이에 대한 교육적 가치와 잠재성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에 세계유산교육이 아직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그 목표, 내용이 체계화되었고 일선 학교 중 일부 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노력은 향후 세계유산교육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

3)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세계유산교육의 접근방법

(1) 세계시민교육과 세계유산교육과의 관계

세계유산교육은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 문화다양성 교육과 연계된다(그림 4 참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학교교육에서 세계유산교육이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세계유산에는 인권, 평화, 전쟁, 창조, 환경, 상생,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가 담겨(허권, 2012, 3)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개인과 민족, 국가의 정체성이며 민족 문화의 상징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개인의 문화적 권리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바탕이 된다. 한편, 인간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자연유산은 인간 삶에 필요한 자연미와 생태학적 가치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환경, 인간과 환경 간 공생적 관계, 기후변화에의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된다.

이러한 세계유산이 전쟁이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유지, 보존되도록 보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쟁과 분쟁의 예방, 각종 이슈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지 표현을 통해 세계 평화와도 연결된다. 세계유산의 공유와 향유와 같은 문화적 권리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인에게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실천력을 동반할 것이며, 인류 역사 속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유산 속 인류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을 것이며, 우수한 기술과 창조성은 인류의 지혜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계유산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수용, 인간과 환경 간 조화로운 관계 형성 등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깊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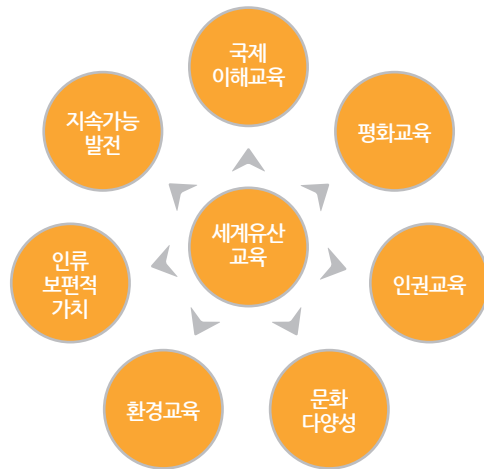


그림4. 세계유산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 관계

(2) 세계유산교육에의 접근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연계성을 지니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안목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문화와 신념, 가치를 존중하고 공유, 향유하며, 전 지구적, 인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상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적 관점 기반, 지역적 관점 기반, 통합적 관점 기반, 현장지향적 접근, 지속가능성 기반 접근, 다양성 기반 접근, 비판적 접근, 문제해결적 접근, 참여적 접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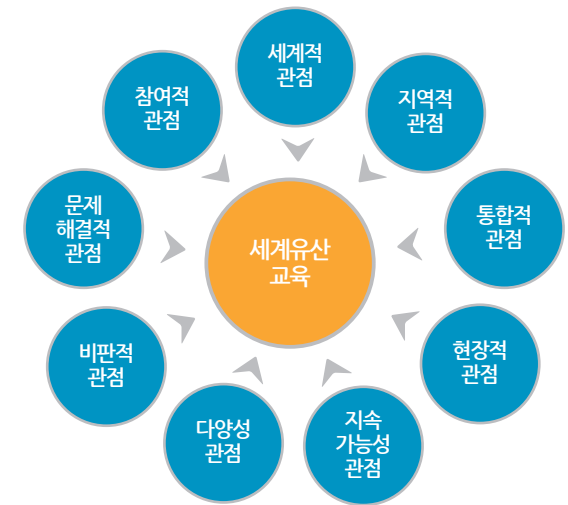


그림 5.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세계유산교육의 접근방법

◎ 세계적 관점에 기반한 교육

세계유산은 인류 모두가 보호, 보존하여 후속세대에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세계유산교육은 우리지역과 한국의 세계유산 속 우리 조상들의 삶의 문화와 가치, 지혜, 기술을 배우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인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방향의 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세계유산교육에서는 교육 소재를 우리 지역의 유산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유산도 탐색하여 그 안에 담긴 인류의 가치와 문화, 지혜 등을 공유하면서 인류애를 가치화하는 방향의 교육도 필요하다.

◎ 지역적 관점에 기반한 교육

세계유산교육은 지역의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의 유산에 담겨진 조상의 지혜, 가치, 기술 그리고 창의성, 미적 아름다움 등을 탐색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학습한다. 지역의 유산을 통한 교육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 안에 담긴 그 지역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 등을 다양성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 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교육

세계유산에는 인권, 평화, 환경, 정의, 글로벌 이슈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상호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의, 토론, 조사활동, 현장 답사, 실습 등 다양한 영역의 학생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토의, 토론 활동은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과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과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토의와 토론은 다양한 영역의 의견 공유와 협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유산의 활용, 보존, 보호, 의미 탐색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인다.

◎ 현장 참여 지향에 기반한 교육

세계유산은 실제로 존재한다. 현장에 기반한 교육은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심미적 감상 뿐 아니라, 형성배경이나 역사를 접함으로써 내적 대화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세계유산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조사하는 현장지향적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 지속가능성 관점에 기반한 교육

세계유산은 인류에게 풍요로운 문화향유와 심미적 자연 감상,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무한한 가치와 삶의 지혜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세계유산을 후속세대에게까지 전승하는 것은 인류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하다. 세계유산에 대한 미래지향적 접근은 인간, 사회, 자연 간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이다.

◎ 다양성 관점에 기반한 교육

세계유산은 인류 문화의 다양성 보고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민족적, 국수적 시각 아래 자국 문화만을 고수하고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사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 민족의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세계인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은 세계문화 다양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호,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으며,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상생, 평화의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세계유산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다.

◎ 비판적, 문제해결적, 참여적 관점에 기반한 교육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유산을 보존, 전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세계유산교육에서는 기존의 태도, 가치, 행동에 대해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학습자가 맹목적인 태도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심을 표현하고 실천에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세계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참여적 태도를 갖추게 된다.

(3)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세계유산교육의 교수-학습방법

방법 1. 주제 기반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

세계유산교육이 주제 기반 통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세계유산교육의 지향 목표와의 관련성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은 세계유산의 위치, 역사와 전통, 생태적 환경, 입지 상황, 등재 배경 등 여러 교과 영역이 필요하다. 여러 교과 영역에서 관련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해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유산교육을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국제이해,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존중, 세계시민의식을 비롯한 가치와 태도에 대한 교육 등 교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탐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즉,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유산 보존과 지구의 생존이 갖는 소중한 가치와 보편적 중요성은 여러 과목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학습이어야 한다.

둘째, 세계유산에는 인류가 형성과 삶과 문화 그리고 지구환경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화다양성, 환경, 상생,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세부 주제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의 적합성이다. 학교 현장의 교육은 교육과정에 기반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한다(교육부, 2015). 또한,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여 모든 교과에서 세계유산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미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세계유산교육은 관련 교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 연계 수업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비교과 수업에서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넷째, 여러 학문의 통합적 접근은 동료교사들 간 협업으로 효과적인 세계유산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세계유산교육은 특정 교과목에 특화된 교육이 아니므로 각 교과교육에서 심층적인 세계유산교육 방안에 대한 교사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관심있는 교사들 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고, 이에 기반하여 협업적 수업을 설계 및 실행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세계유산교육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실행 방식

학교에서 주제기반 통합적 접근의 세계유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비교과 주제 학습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학교 급, 학교 환경, 학습자의 상황, 교사의 전문성,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등에 의해 적정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학교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서에 반영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 전반 혹은 ‘전학교적 접근(whole school)’의 방식으로 기존 교과에 통합,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학

생 동아리 활동, 학교 간 교류, 학교 환경 구성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고 교사 간 협업과 학교 차원의 지원을 얻을 수 있어 학교-학생-학부모-교사 간 협력적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주제 기반 통합적 세계유산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수업시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교과 내용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배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수업 장소에 대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교과 간 통합적 주제: 세계유산교육은 시민교육을 비롯하여 지리, 역사, 음악, 미술 등 모든 교과에서 관련 주제를 추출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교과 영역에서 활용하는 학습 방식의 적용은 세계유산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면적 접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문제해결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 형성에 도움을 준다.

◎ 학생 활동

주제기반 통합적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생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제안된 학습방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세계유산 학습 주제에 대해 적극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와 세계유산의 보존 필요성 인식, 보존의 방법에 대해 적극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토의, 토론: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유산에 담겨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창의성, 삶의 지혜, 아름다움 등을 탐색하고 감상하며, 나아가서 후속세대에게 전승할 수 있게 보호,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학습자로 하여금 유산의 의미, 가치, 유산 관리에 필요한 방법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방법을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토론 방식의 교육은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조사 활동: 세계유산교육은 교수자의 지식전달보다는 학습자가 직접 세계유산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존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이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습자 중심의 조사활동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세계의 세계유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 검색과 분석, 이를 통한 결론 도출, 제안 등의 조사 활동은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유산 탐방: 세계유산의 가치는 세계유산의 입지와 관련성이 있다. 세계유산이 있는 곳의 주변 환경에 대한 파악은 세계유산의 형성 배경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직접 관찰하는 것은 세계유산의 심미적 가치와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법 2. 현장 체험학습 활용 교수-학습 방법

세계유산은 현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세계유산의 현장과 관련 자료실,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학습할 수 있다. 현장 방문은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세계유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세계유산의 심미적 가치를 파악하고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방안 탐색에 도움이 된다. 또한, 세계유산을 직접 관찰, 직접 측정할 수도 있어서 기술적 우수성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현장 체험학습은 교실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찰, 호기심과 흥미 유발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으며 오감을 활용하여 대상을 깊이 있게 체험, 탐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에 기반한 세계유산교육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자유롭게 시간활용이 가능하며, 매년 또는 매학기 현장체험학습 시간이 배분되어 있고 사회과와 과학과 수업에서는 현장체험 중심 수업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현장체험 기반 학습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계획, 효과적인 활동 조직이 이뤄져야 한다.

◎ 현장 체험

사전 준비: 현장 탐방이 기대하는 바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 교사는 세계유산 수업 설계를 통해 현장 탐방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
- 교사는 현장 탐방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탐방 내용을 계획한다.
- 교사는 미리 사전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학생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 교사는 현장 탐방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 교육이 이뤄지도록 미리 관계자와 준비해야 한다.
- 교사는 현장 탐방 후 학생들의 후속 활동을 설계한다.
- 교사는 현장 탐방에서 활용할 활동지를 만들고,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와 장비를 준비한다.

현장 탐방: 현장 탐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감상, 면담, 스케치, 모형 구안 등 세계유산의 특성과 학습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세계유산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이야기 및 가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 작업: 학습은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내용을 학습자의 사고 활동과 내면화를 바탕으로 결과물로 표현했을 때 이뤄진다. 그런 면에서 현장 탐방 후 활동은 준비 작업 못지않게 중요하다. 후속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 학습자가 보고, 느낀 것을 함께 논의한다. 이를 통해서 세계유산에 대해 더 풍부하게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 학습자가 현장에서 관찰,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학습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현장 탐방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은 세계유산에 대한 낱알의 사실들이다. 이 사실들을 주제 중심으로 정리하여 학습주제에 접근하게 한다.
- 학생들의 학습활동 결과물을 전시 또는 공유하여 학습효과의 확산을 도모한다.

방법 3. 문제해결학습 활용 교수-학습 방법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 미적 가치, 민족적 정체성, 기술적 우수성 등 여러 우수한 면들을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지만, 이러한 세계유산을 현재의 인류가 공유, 향유하고 후속세대에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문제해결학습은 세계유산교육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해당한다. 문제해결학습은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력, 지식의 전이와 활용능력, 성취도, 협업 능력 등 다양한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세계유산이 처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창의적으로 적정 대안을 구상, 적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학습을 통해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다.

◎ 실행 방식

- 교사는 세계유산의 문제 상황을 설정한다. 문제 설정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문제를 파악하여 제시한다.
- 문제 제시 및 문제 상황 인지 단계에서는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 문제해결 탐색 단계이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학습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문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 구입 방법, 현장탐방 계획 등을 세운다.
- 문제 해결방안 제시 및 발표이다. 문제 해결방안의 제시에서는 앞의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한다. 최종 대안 도출에서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발표에서는 대안 도출의 근거와 대안이 동시에 발표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습팀에서 제시한 근거와 대안이 타당한지 검토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기준에 기반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리 및 평가 단계이다. 본 수업을 매듭짓고 이후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활동이다. 특히, 세계유산 수업에서는 해결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가치의 내면화와 인격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연스럽게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정리와 자기평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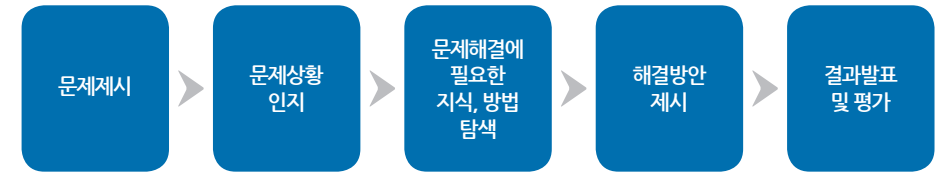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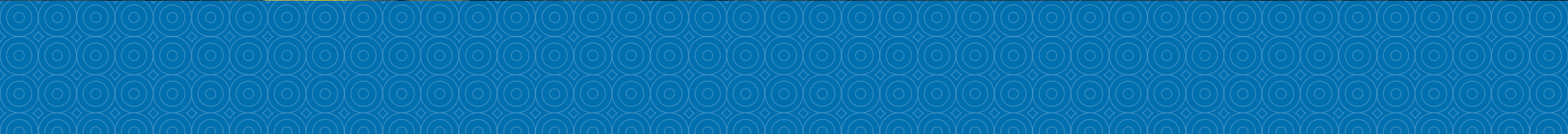
그림 6. 문제해결학습 과정



II

제주의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 1. 제주도의 세계유산
- 2. 제주 세계유산의 의미와 교육 프로그램



II 제주의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는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은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하며 생겨난 인문환경 또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을 가진 세계유산(world heritage)과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의 가치를 발굴, 보호, 보존하고자 유산 목록 등재를 하고 있는데, 등재 유산은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모두는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설정해 세계유산을 정의하고,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반인들의 세계유산 보호 인식 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권장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일은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혹은 국제문화재보존 복구연구센터(ICCRU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자연유산과 관련된 일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에서 권장하고 있다.

세계유산에 대한 보호의 의미는 각기 다른데, 자연 유산의 경우에는 보호/수호(protect),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보호/호위(safeguard)를 가진다. 자연유산은 물리적 형체를 가진 대상으로 보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무형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체가 아닌 사람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음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자량이 아니라, 이들 유산을 잘 보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유산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지혜를 얻는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1. 제주의 세계유산

제주의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독특한 생활 문화는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자연유산은 제주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그리고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2006년)다. 한라산은 제주도 화산체의 중심을 이루고, 성산 일출봉은 바다 속에서 수중 폭발로 형성된 일출봉이다. 그리고 제주도에 360여개의 오름에서 분출된 현무암 용암이 흘러내리며 동굴을 형성하였는데, 거문오름 주변의 용암 동굴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용암 동굴들은 단일 기원의 현무암 화산 지형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점에서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2009년)과 '제주 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2016년)가 등재되어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매년 음력 2월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시 건입동 본향당에 모여, 바람의 여신인 영등 할머니와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굿을 여는 행사이다. 굿을 여는 사람은 무당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해녀와 선주인 단골(주민들)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전통과 주민들의 삶의 모습, 자연관과 신앙심을 모두 담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축제로 그 가치가 높다.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과도 관련이 깊다. 제주는 어업이 중요한 생계기반이지만, 암석 해안이어서 항구 발달이 미흡한 데다가, 바람이 잦고 파도가 강해 어선 어업보다 해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연안 어업이 더 중요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의 성별 분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척박한 제주 환경에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밭에서 김을 매거나 바다에서 물질을 해야 했는데, 해녀는 바다에서 소라, 전복, 미역 등을 채취하는 여성을 말한다. 잠녀라고도 불리는 해녀는 생업을 위해 험한 바닷속에서 용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으로,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정신을 지닌 제주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에는 제주의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의의와 이들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과 '제주 해녀문화'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지역은 188.46km²(핵심지역 94.75km², 완충지역 93.70km²)로 제주도 전체 면적 1,845.88km²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고, 한라산,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의 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라산은 물이 고인 분화구, 폭포와 다양한 모양의 암석이 분포하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성산 일출봉은 바다에서 분출한 응회구(tuff cone)로, 요새 모양의 경관을 지니고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만장굴, 벵뒤굴, 용천굴 등은 어두운 용암 벽으로 쌓여 있고, 천장과 바닥이 다양한 색의 탄산염 동굴생성물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동굴계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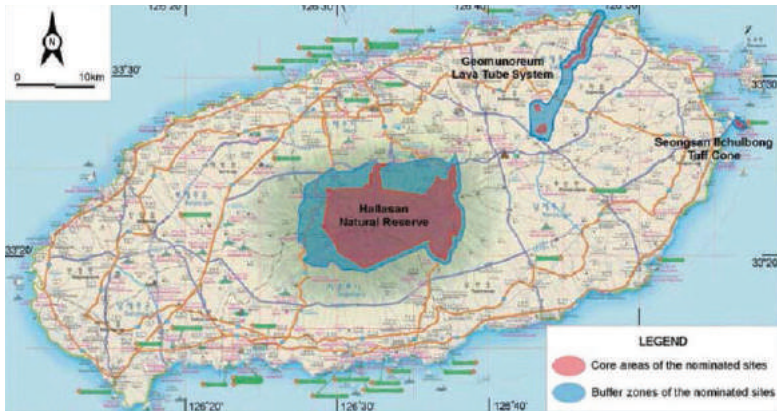


그림 7. 제주도 등재 자연 유산 지역

(출처: IUCN, 2007)

• 한라산

세계 10,000개의 화산 중 대부분은 용암이 흐르며 형성되는 순상화산(shield volcano)이거나 폭발 물질과 용암의 혼합물로 구성된 성층화산(strato volcano)이다. 순상화산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와이처럼 돔 형태다. 이러한 순상화산의 형태와 비교했을 때, 성층화산은 일본의 후지산처럼 더 가파른 원추형이다.

이 두 형태 중 방패 모양의 순상화산은 지난 1만년 동안 분출했던 1,500개의 화산 중 10% 정도인데, 이 중 대다수는 해저, 띠 형태의 섬, 지각이 깊이 가라앉은 곳에 형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제주도는 대륙판에 형성된 커다란 방패 모양의 순상화산으로, 안정적인 대륙판 가장자리의 해양 환경에 마그마 분출구(hot spot)를 형성한 점이 특이하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의 등재 가치기준

- 기준 (vii) 지질학적 가치 탁월: 계절에 따라 색과 모습이 달라지는 한라산은 폭포, 갖가지 모양으로 형성된 암석, 주상 절리 절벽, 분화구에 호수가 있는 우뚝 솟은 정상 등이 경관과 미적 매력을 더해 준다. 성산 일출봉 응회암은 요새 형태의 벽면이 바다 밖으로 솟아나와 경관이 극적이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는 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동굴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런 종류의 용암 동굴을 이미 본 적 있는 사람조차 빼어난 시각적 효과에 감탄한다. 동굴 천장과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탄산염 생성물이 장식되어 있으며, 탄산염 침전물은 어두운 용암 벽에 벽화를 그린 것처럼 군데군데 덮여 있어 독특한 볼거리를 연출한다.
- 기준 (viii) 경관적 가치 탁월: 제주도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움직이지 않는 대륙 지각판 위 열점(hot spot)에 생성된 대규모 순상 화산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성산 일출봉 응회암은 구조적인 특성과 퇴적 특성이 드러나는 이례적인 곳으로서 얇은 바다에서 수중 폭발한 화산 활동을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치를 평가받는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용암 동굴계 중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동굴로 동굴 생물(speleothem)이 다양한 형태로 장관을 이루며 늘어서 있다. 이는 다른 용암 동굴 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종유석 같이 부수적으로 생겨난 탄산염 동굴생성물이다.

(출처: IUCN, 2007)

한라산은 주요 화산 활동으로 정상부에 직경 550m, 깊이 108m의 16,000m³의 호수로 채워진 분화구가 있으며, 이후 활동으로 만들어진 조면암의 등근 오름과 기둥 형태의 현무암 주상절리가 급격한 절벽을 이루고 있다. 식물은 한국 전나무가 중심을 이루는 아고산대 상록 침엽수에서 몽고 참나무 중심의 온대 활엽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종이 분포한다. 식물상은 제주도와 한국 고유의 일부 종과 북쪽과 남쪽의 분포 한계가 있는 종들이 있다. 동물종은 4가지 고유종을 포함한 20종의 포유류가 보호 지역에 서식한다.



그림 8. 한라산 모습

©APCEIU/유용례

●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은 제주 화산 연안의 화산 지층에서 발견되는 응회암 화산의 특징을 지니는데, 각력암, 응회암, 층상 응회암 및 침상 응회암 등으로 구성된 이 구조물은 늦은 홍적기 시대(12만 ~ 40만 년 전)에 얕은 해저에서 발생한 쉰시형(Surtseyan)(아이슬란드 어) 분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모습은 직경이 570m에 달하는 사발 모양의 정상 분화구가 있는 179m 높이의 성과 비슷하다. 성산 일출봉은 마그마가 물과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폭발적인 분출에 따라 형성된 화산으로,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거의 모든 외부 구조가 침식되어, 내부 구조와 성층화를 드러내는 절벽을 가지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그림 9. 성산 일출봉
© APCEIU/유용례

●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제주도의 가장 중요하고 특색 있는 화산 지형은 용암 동굴계이다. 이 용암 동굴들은 공기 배출 활동이 멈추고 액체 용암의 일부가 하향 경사를 따라 흐르면서 생겨난 것으로 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동굴은 규모, 모양 및 내부 장식이 석회암 카르스트에 있는 것과 유사하지만, 용암 동굴은 점성이 매우 낮고 높은 온도를 지닌 용암이 흐르며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면이 얇게 굳어도 내부에는 높은 온도의 용암이 계속 흐르며 점진적으로 용암의 높이가 낮아져 동굴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굴 내부에서는 계단 모양의 층을 통해 동굴 내에서 흐르던 용암의 높이가 여러 번 변화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굴의 천장 가까이에는 돌고르름처럼 생긴 용암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용암은 상당히 묽은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용암 동굴은 세계 대부분의 화산 현무암 지대에 분포한다. 그러나 거문오름 주변의 용암 동굴들은 긴 길이의 규모, 방대한 부피, 복잡한 통로 구성, 잘 보존된 내부 용암 특징, 장관을 이루는 2차 탄산염, 접근의 용이성, 교육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된다. 제주도 만장굴은 길이 7.4km로 세계의 7km가 넘는 12개의 용암 동굴 중 하나이며, 연관된 김녕굴과 용천 동굴의 길이를 합치면 13km 이상이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를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특색 있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은 장식물과 탄산염 퇴적물이다. 방해석(calcite) 같은 아주 작은 퇴적물은 용암 동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만, 퇴적물의 밀도와 다양성은 제주의 용천과 당치물 동굴에 훨씬 못 미치며 제주도 용암 동굴의 중유석 규모는 다른 사례보다 훨씬 크다. 탄산염 퇴적물은 제주도 용암 동굴 위로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이 날려 쌓인 후, 물에 용해되어 동굴 내부로 스며든 것이다. 석회암 동굴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유석들을 만들지만, 그 형성 배경이 달라 유사 카르스트(pseudo-Karst) 동굴로 불린다.

화산 동굴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과학단체 <세계중유석협회>의 화산동굴위원회는 제주도 화산 지형을 세계 유산 등재에 추천한다는 서신을 작성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주의 용암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당치물 동굴의 탄산염 중유석은 세계에 유사한 사례가 없어 특별히 가치가 높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화산동굴학(volcanospeleology)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5년 <글로벌리뷰>도 당치물 동굴을 '화산 동굴 내 중유석을 가장 색다르게 보여주는 전시장'으로 간주했다.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평가 보고서에서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상류 동굴군이 동굴계의 연장선상에 있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보전이 잘 되어 있으며, 기존에 등재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2018년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옷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3곳(한국 천연기념물 제552호)을 뱀뒤굴과 만장굴의 연장선에 위치해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의 완전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림10. 용암 동굴 내부

(출처: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그림11. 당처물 동굴 내부: 석회 성분이 만든 중유석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자연유산을 등재함과 동시에 몇 가지 주의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선, 방문객이 많아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지정된 유산 지역과 관련된 상업 활동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 방문센터를 각 지역에 만들고자 하는데, 제주 돌문화공원이 화산 지형의 특색을 보여주는 데 충분하므로 추가로 세계유산방문센터를 만드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정된 구역 내의 사유지를 가능한 서둘러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지표면 상의 농업 관행이 지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의 완충 지대에서 엄격한 규제 조치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제주는 최근 자연의 가치와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주하는 인구가 늘며, 주택 건설, 도로 확충, 제2공항 건설, 상하수도 확충 등 다양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점차 삼림, 녹지

공간이 줄어들고, 도시 구역이나 공공시설 용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개발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로 건설로 인한 용암 동굴의 훼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개발압력을 견디기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안목으로 제주의 자연 유산을 본다면, 개발보다는 보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크다. 제주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중요한 화산 지형들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가치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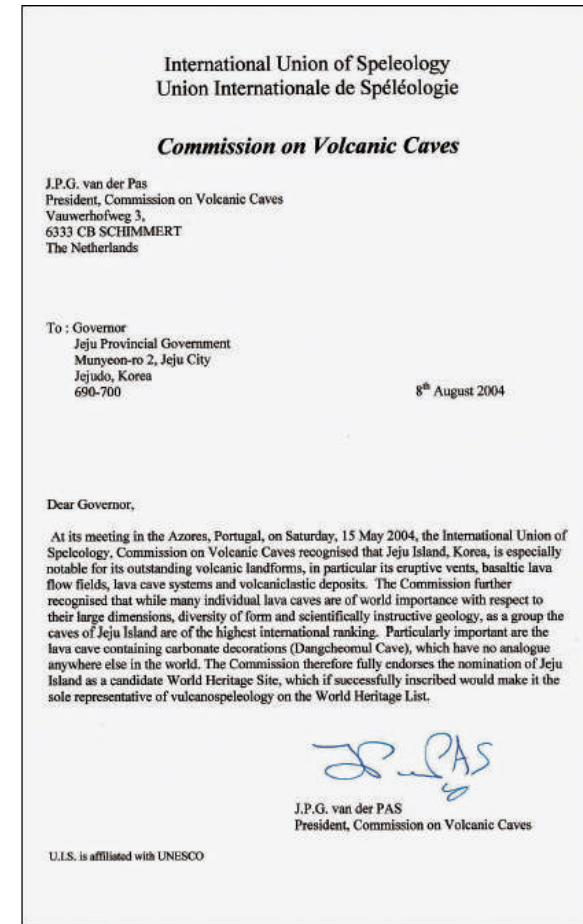


그림12. 세계 중유석 협회의 화산 동굴 위원회가 제주 용암동굴을 세계 유산으로 추천한 서신

(출처: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그림 13. 해녀 모습: 개량 고무 해녀복과 오리발, 테왁
© APCEIU/유용례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문화

제주 해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토양이 비옥하지 않아, 대규모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해안 마을 대부분과 그 부속 도서의 가정은 물속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이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은 한반도의 연안 마을과 일부 다른 섬에서도 행해지지만, 상당수가 계절에 따른 이주 노동자로 제주도 밖에서 물질을 하던 제주 해녀가 전수하거나 그곳에 정착하면서 전해진 것이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남녀가 물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에서 물질은 여성들의 작업으로 물질을 하는 사람을 해녀(海女), 일부 마을에서는 잠녀(潛女) 혹은 잠수(潛水)라고도 부른다.

제주 해녀들은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심 10m까지 잠수하여 전복이나 성게 등 조개류를 채취한다. 바다와 해산물에 관해서 잘 아는 해녀들 중 최고령은 80대에 이르는데, 한번 잠수할 때마다 1분간 숨을 참으며 하루에 최대 7시간, 연간 90일 정도 물질을 한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독특한 휘파람 소리를 낸다. 해녀들은 저마다의 물질 능력에 따라 하군, 중군, 상군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며, 상군 해녀들이 나머지 해녀들을 지도한다. 잠수, 해산물 채취와 관련된 지식은 가정, 학교, 해당 지역의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 잠수회, 해녀학교 등을 통해 젊은 세대로 전승하고 있다. 잠수를 앞두고 제주 해녀들은 무당을 불러 바다의 여신인 용왕 할머니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잠수굿을 지낸다.



그림 14. 제주 해녀 학교 학생들
© APCEIU/유용례



그림 15. 제주 해녀 전통의상
© APCEIU/유용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제주 해녀문화를 평가할 때, 제례의식이 행해지는 지역공동체의 문화 정체성과 활력 있는 정신의 가치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잠수 기술의 전수와 공동 수확으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생태 지역 지식에 기초해 작업을 하며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주 해녀문화의 생태 친화적 방식을 높게 사고 있다.



그림 16.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의례
© APCEIU/유용례

제주 해녀 문화와 칠머리당 영등굿의 관계

해녀들은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으므로 신변의 안전과 해산물의 수확을 평생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서 영등굿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다. 바람의 여신인 영등을 보내면서 단골들은 “떠나시면서 고동, 전복, 낙지, 해삼 등의 씨를 뿌려 주시어 바다에 의지하여 사는 저희가 풍성한 해산물을 수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원한다. 사라져 가는 제례인 영등굿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당 이외에 해녀들, 선주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음식과 공양물을 지원한다. 일정한 시기에 치러지는 의례이자 문화 축제이기도 한 영등굿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어 돈독한 관계를 맺도록 해준다. 영등굿은 또한 제주도 바닷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바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주 해녀 문화와 칠머리당 영등굿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주 해녀문화는 제주도 전역에 퍼져 있다.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얻은 소득은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제주 해녀들은 바다 속의 암초와 해산물의 서식처를 포함하여 바다에 관한 인지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조류와 바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다. 물질은 노련한 해녀들을 관찰하고, 다른 해녀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배운다. 또한,

반복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익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족 내의 여성들 사이에 전승된다. 물질 실력을 기준으로 제주 해녀공동체는 상군, 중군, 하군의 세 집단으로 나뉜다. 상군 해녀는 오랜 기간 물질을 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암초와 해산물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 해녀들의 머릿속 지도와 지식은 저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물질을 통해 경험으로 습득된다. 물질 기술과 제주 해녀문화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주 해녀공동체에서 오랜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왔다. 해녀들은 물질을 할 수 있는 날씨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인 일기예보보다 물질 경험이 오래된 상군 해녀의 말을 듣고 판단한다. 제주 해녀들은 바다의 여신인 용왕 할머니에게 제사(잠수굿)를 지내 바다에서 안전과 풍어를 기원한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물질을 할 바다로 나갈 때 불렀던 ‘해녀 노래’ 역시 제주 해녀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주 해녀들은 상군 해녀들로부터 물질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녀문화에 대한 지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배운다. 마을 어른계가 마을 주변 어장에 대한 입어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물질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른계에 가입하고 해녀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른계와 해녀회는 제주 해녀문화를 실천하고 전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진다. 제주 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이지만,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절제를 가능하게 하며 지속가능한 채취 활동을 위해 호흡을 돕는 장비의 도움 없이 물속에서 머무는 개인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작업을 한다.

해녀들의 ‘숨비소리’와 ‘물숨’

‘숨비소리’는 해녀들이 잠수 후에 물 위로 나와 숨을 고를 때 내는 소리다. 몸속의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실 때 나는 ‘호오이~ 호오이~’ 하는 소리다. 해녀들은 ‘숨비소리’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신선한 공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 짧은 휴식으로도 물질을 지속할 수 있다. 해녀 물질의 어려움과 의지를 모두 표현하는 소리로 읽힌다. 그리고 해녀들 사이에는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숨’이다. 사람의 숨이 아닌, 물의 숨,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물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물숨’의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고 해녀들은 말한다.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배 해녀들은 후배에게 욕심을 내지 말라고 가르친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4)

해녀 공동체는 해마다 잠수 일수를 결정하고 작업 시간,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의 최소 크기를 정하며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히 지정된 일부 바

다에서 공동 작업을 해서 얻은 이익으로 공동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바당’이라 불리는 구역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공동체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를 짓는데 사용되었다. 이런 활동은 해녀와 그 공동체가 가진 연대와 조화의 정신을 증명한다. 제주 해녀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며 삶을 일구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주도의 해녀는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풍요로움을 지향하기보다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공동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운영해왔다. 잠수복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환경·사회 인식은 흥미롭다. 해녀들은 발전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채취 작업을 하여,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왔는데, 현재의 고무 잠수복은 1970년대 도입되었다고 한다. 당시 고무 잠수복 도입은 해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고무 잠수복 이전의 무명 잠수복은 체온 저하로 작업을 20분 전후 밖에 지속할 수 없어, 물 밖으로 나와 불을 쬐며 체온을 올려야 했는데 이를 위해 등을 쌓아 바람을 막는 불턱을 만들었다. 고무 잠수복은 체온을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 잠수시간을 늘릴 수 있었으나, 가격이 비싸 일부 능력이 있는 해녀만 구입이 가능했다. 이에 고무 잠수복의 도입은 경제력이 수확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오랜 잠수 시간이 많은 채취로 이어져 자원의 남획, 고갈로 이어진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였다. 그러나 안전 문제, 가격 인하 등으로 고무 잠수복이 보편적 복장으로 채택이 되었다.

한편, 불턱은 단순히 몸을 덥히는 장소를 넘어, 잠수회나 마을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규범을 정하는 기능도 갖게 되면서, 민주적인 공동체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주 해녀문화의 장점으로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 자원에 의존했던 경쟁적 자본주의가 점차 자원 고갈의 위기를 맞이하고,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빈부 격차가 커짐에 따라,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 공유 경제가 관심을 얻으면서, 제주 해녀 문화가 현재의 삶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제주 해녀의 어로 작업은 개인의 경제 활동과 더불어 공유 자원에 대한 이용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되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운영 사례다.

제주도 해안 마을은 연안 어장에서 어촌 계원이 직접 어로 작업에 종사하며 자율 관리 어업을 일찍부터 발전시켜 왔다. 특히, 해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어업은 어촌 마을의 입어 관행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해왔다. 연안 어장은 관할 수역의 경계선을 이해관계가 있는

어촌마을 간의 합의에 의하여 확정하고, 이렇게 확정된 수면을 어장 경계선으로 구획하였다. 연안 어장은 어촌마을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장 경계선을 구획한 마을어업의 경계선으로 선대 때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다. 어촌 마을의 자생적인 자치 조직은 어촌의 자치 규정에 의해 마을의 총유(總有)로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권능을 가지지만, 그 재산의 사용과 수익의 권능은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 속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안 어장은 합리적으로 마을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장이 넓고 해산물이 풍부한 경우에는 동별로 획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구좌읍 하도리의 어장은 넓은 편이어서 동별로 나누어져 있다. 어장 구획선은 토지와 달라 뚜렷하지 않은데, ‘곰’이라고 불리는 구획선은 해안에 있는 곳과 바다에 있는 여를 잇는 경우도 있고 눈에 띄기 쉬운 바위를 기준하여 직선으로 그어 획정하기도 한다. 그 경계 기점에 곳이나 바위가 없을 경우에는 바위 위에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그 구획의 기점으로 삼는데, 어장의 경계 설정은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제주도 연안 공동어장에서의 해녀 입어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입어 관행에 따라 행해져 왔다. 어장의 경계선 책정, 어장의 관리 및 처분, 입어 자격의 득실 결정, 입어의 시기와 방법, 입어료의 결정과 징수 방법 등 어장 질서 유지에 대한 규제는 국가법이나 행정관청의 관여 없이 마을 자체의 규약 등과 같은 불문율에 따라 정해졌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지닌 입어 관행은 종래의 관행에 따라 이룩된 관습법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

해산물 채취 작업의 기본적인 원리는 채취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과 공동 작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어장의 질서와 성별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경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표 8 참조). 개별은 잠수들의 물질이 대표적인 예인데, 비계통 출하가 없고 마을어장에서 가장 길게 이어지는 작업 형태이다. 공동은 개인들이 모여 팀을 구성하여 함께 일하는 협력 작업을 가리키는데, 우뭇가사리 채취 작업에서 볼 수 있다. 조합 공동은 해초 채취에서 볼 수 있는 노동 형태로 동네별 조합들이 작업과 출하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표 8. 제주 해녀의 어로 형태

구분	개별	공동팀	조합공동
채취자	잠수	동네 잠수들	동네 어촌계원
분배	개별분배	참여자 공동분배	가구별 분배
종류	패류와 그 외	우뭇가사리(감태, 풍초)	해초
방식	연중 8개월간	한시적, 팀의 자율	한시적, 각 동별 자율
시기	여름 외 연중	늦봄과 여름	봄, 늦봄 2기
판매	계통출하	비계통·계통출하	비계통·계통출하
성별분업	여성	여성 중심	혼합

(출처: 안미경, 2008.)

또한, 잠수회는 마을어장 내의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연중 몇 차례만 이 구역에서 물질하며 전복의 작은 종패를 이곳에 뿌리는 등 자원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잠수회는 누구나 보이는 곳에 양식장을 설치하여 항상 감시원을 두어 지키고 있으며, 양식장에 몰래 입어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물질 중 조류에 따라 양식장으로 들어가서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벌금을 물렸다. 자연 양식장은 그들에게 공동 재산의 의미를 가진다. 또는 자연 양식장은 그들에게 공동의 재산이다. 이와 같은 자연 양식장은 그들에게 공동 재산의 의미다.

새 잠수 회원에게 가입비를 징수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내적 규율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상위 규모에서는 해양 자원의 고갈 방지 목적으로 총 허용 어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라의 경우,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첫 번째 관리대상 해산물로 지정되었다. 산란 시기를 금채기로 지정한 전국적 규제를 따르면서, 지역 잠수회는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바쁜 시기를 금채기에 추가하여 출하 물량 조절에 따른 시장 가격 형성을 유리하게 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표 9 참조), 이러한 체계는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 달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표 9. 해산물의 금채기와 금지체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툰	~1/31										10/1 ~	
우뭇가사리	~ 4/30										11/1 ~	
소라						6/1 ~ 8/31						
해삼							7					
미역									9/1 ~ 11/30			
전복										10/1 ~ 12/31		
감태류	1/1 ~ 12/31											
오분자기												
성게												

*연중 포획금지: 전복 체장 10cm 이하, 소라 체장 7cm 이하, 오분자기 체장 3.5cm 이하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8)

해녀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금채기의 설정은 해양생물의 생태적 지속성 유지를 위한 지식이었는데, 그것은 어업 활동의 결과,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험적 지식이다. 이러한 물질 관련 지식과 기술은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체득되지 않는다. 선후배간의 해녀 공동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몸기술' 이면서, 물속 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해녀 공동체만의 지역적 공유지식이다. 제주도의 해안선 93%는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화산폭발로 흐른 용암이 바다 속으로 흘러들었다. 바닷가에서부터 바다 속으로 2km까지 흘러간 곳도 있어 대부분의 해안이 '돌바다'를 이루는데, 해녀들의 일터인 마을어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마을어장은 만조 시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시는 드러나는 곳인 조간대와 그보다 깊은 수심의 조하대로 나뉜다. 제주에서는 조간대를 '갯'이라 부른다. 조간대에는 다양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이 바위에 서식하고 있어 해조류를 따거나 물고기를 잡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조간대를 벗어난 지대인 조하대에서는 잠수를 통해서만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이 조하대에는 제주에서 '여'라고 부르는 수많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어선 어업이 어려운 조건을 만드는 요인이지만, 해안의 생물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제주의 마을 어장 사례를 보면, 한 마을 어장에 20여 개의 '여'(원으로 나타낸 곳)가 널려있다(그림 18 참조). 썰물에 드러나는 '여'(●)가 있는가 하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여'(○)가 있으며, 그 중간지대에서 간만의 차에 따라 드러나고 숨기를 반복하는 '여'(⊗)도 있다. '여'는 그 위치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해산물도 다르다. 때문에 해녀들이 '여'와 만나는 계절도 제각각이며, 조하대 깊은 곳에 위치한 '여'에 값이 더 나가는 해산물이 서식한다. 해녀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전복이나 미역은 조하대 깊은 곳의 '여'와 그 주변에서 서식해, 해녀들의 물질기술이 제대로 발휘되는 지대도 바로 이 일대이다. 이러한 제주 마을어장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어장을 발견을 통한 성공적인 수확의 기본적 요소이다. 해녀들은 물질 기술을 익히는 한편, 어장 특성에 대한 지식을 점차 늘려가면서 숙련도 높은 해녀가 된다. 특히, 기술과 지식이 가장 뛰어난 '상군' 해녀들은 어장 지형을 숙지하여 암초에 대한 지형물의 특성을 터득하고 해산물 생태에 따라 서식처도 거의 알게 된다. 이러한 수준의 해녀들은 깊은 물속, 오랜 시간 잠수하여 전복과 같은 귀중한 해산물이 있을 곳도 가늠할 수 있고, 어장 곳곳의 암초에 따라 생산되는 해산물의 종류를 숙지하게 되며, 경험적으로 마을 어장에 대한 지역 지식을 쌓아 간다.

제주 해안 어장은 마을의 공동 재산으로 마을이나 동네 사람들이 공동체 의무를 지며 모두

공동체 의무 이행에 따른 관행이나 규율, 결석자에 대한 벌칙은 마을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 해초 제거 작업을 하는 날 해녀가 병중일 때에도 중병일 때는 벌금 반액을 내야 되고, 경병일 경우에는 결석으로 간주해 벌금 전액을 내야 하는 마을도 있다. 마을에 새로 이주해 온 해녀라면 우선 어촌계에 가입하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해초 제거 작업에 불참했을 때에는 벌금을 더 내야 입어할 수 있다. 해녀들이 어장을 가꾸어 나가는 관행은 성문화되었든 불문율이든 법률 이상으로 철저히 지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어장 관행을 불문율로 지키고 민주적으로 합의된 여러 가지의 관습을 자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어장은 합리적이며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례로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도 매우 크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 해녀문화는 작은 부표(테왁) 하나에 의지하여 거친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해녀의 상징적 이미지와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 온 제주도민 정체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덧붙여, 생태친화적인 어로 활동과 공동체에 의한 어업 관리는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지역지식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유경제의 세계적인 대표 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그림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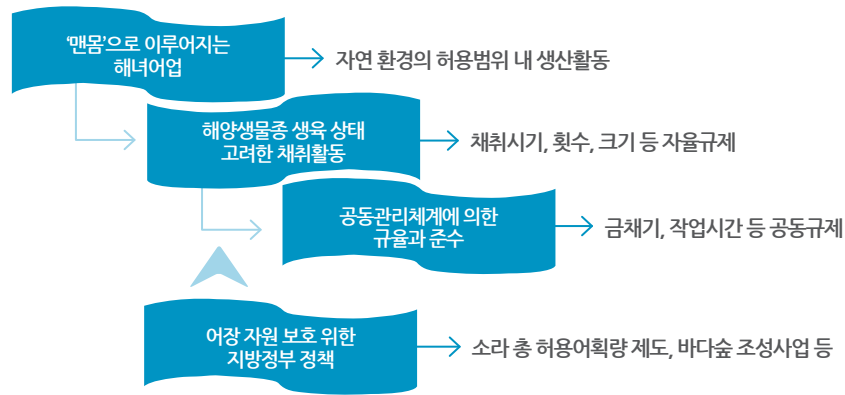


그림 19. 해녀 어업의 생산방식과 지속가능성

2. 제주 세계유산의 의미와 교육 프로그램

제주의 경우 세계자연유산 대상 중 한라산은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등산객 수의 적정 규모와 통제가 필요하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는 만장굴을 제외한 나머지 동굴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비교적 보호가 잘되고 있다. 하지만, 동굴 위에 위치한 도로 진동으로 동굴 내부의 균열이 생기거나 파괴되고, 농업 활동으로 인해 농약, 비료 등의 물질이 동굴 내부로 스며드는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산 일출봉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매년 과도하게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통행로의 많은 부분이 이동 압력으로 훼손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상부에서의 경관과 해돋이 감상이 방문 목적이어서 방문객 분산과 교육적 탐방의 대안 경로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적 탐방의 측면에서 볼 때, 한라산과 만장굴, 성산 일출봉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핵심적 가치인 지질, 지형적 가치가 방문객들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자연유산의 가치, 특히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은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며, 이는 보존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요하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은 크지 않은 섬 지역에 다양한 화산 지형이 나타나고 있는 연속 화산체로 의미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개관과 간접 탐방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nhcenter.jeju.go.kr/index.php/main>)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직접 탐방은 한라산, 성산 일출봉 그리고 만장굴의 일부를 대상으로 이동 경로를 따라 가능하다(그림 20 참조). 많은 방문객들이 안내자의 통제나 설명 없이 개별 탐방을 하고 있어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동행하는 탐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용암 동굴을 만든 거문오름은 화산 지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0.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구역 안내 자료
(출처: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홈페이지)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훼손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거문오름은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평일 100명, 휴일과 공휴일 200명으로 탐방 예약제와 총량제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 단락에서는 성산 일출봉의 지질 형성 과정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간략히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 이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가 미래의 자연 환경/자원의 이용과 관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각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은 약 5천 년 전 해수면이 현재와 같았을 때, 얇은 수심의 해저에서 수성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이다. 수성 화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이러한 화산을 섯시형 화산이라 부르는데, 1963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안에서 바닷물이 끓으며 용암이 몇 달간 지속적으로

분출해 화산섬 섯시가 만들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화산 분출은 높은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나오고 버섯구름처럼 화산재가 위로 솟구치는 게 일반적인데, 섯시 화산은 바다 속에서 화산이 분출한 경우로 성산 일출봉도 이러한 원리로 생겨났다.

제주의 성산 일출봉은 뜨거운 마그마가 바닷물이나 지하수를 만나 수증기와 함께 폭발을 일으키는 수성 화산활동이 분출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 분화구가 용암이나 분석으로 채워지지 않아 현재와 같이 사발모양으로 남아 있다. 이는 높이 180m, 분화구 직경이 약 600m, 분화구 바닥이 해발고도 90m를 보이는 전형적인 응회구 지형을 형성하였다. 또한, 분출 도중 다량의 물이 화구로 섞여 들어가 화산쇄설물이 매우 습하고 끈적끈적한 상태로 분출하여 쌓인 화산재의 경사각이 최대 45°나 되는 급격한 사면의 지질 구조를 만들었다. 가파른 경사면은 습한 분출이라 하더라도 불안정해 화산체층들이 가끔 무너져 화산체의 사면 아래쪽에 여러 개의 층들이 기왓장을 포개 놓은 듯이 겹쳐진 양상을 보인다. 이런 구조는 미끄러져 내려온 응회층의 앞부분이 먼저 멈추고, 뒤 따라온 응회층이 그 위에 반복적으로 겹쳐져 만들어 지는데 화산재가 끈기를 가져 응회층이 한 덩어리로 사면을 따라 미끄러질 수 있어야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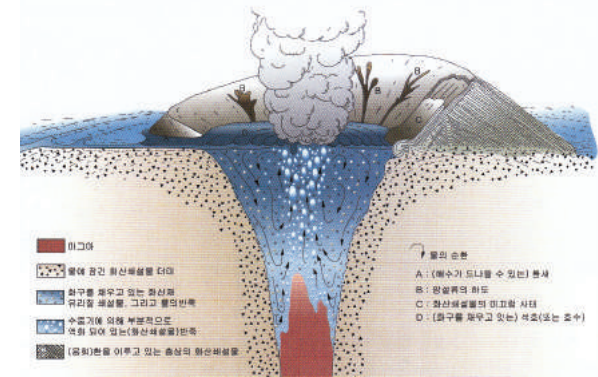


그림 21. 수성 화산폭발 모식도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 해녀 공동체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자원의 고갈에 따른 정책으로 공유재의 비극론, 즉 누구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경쟁적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고갈된다는 주장에 근거해 규제와 사유화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주민 생계기반

의 박탈과 빈부 격차의 심화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근대적으로 취급받던 많은 공동체 사회경제의 전통적 공유재 관리와 활용에 대한 성공적 사례를 발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노력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공공재, 공유재에 대한 대안적 사고가 대중적 관심을 얻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례 연구들은 공유재의 비극론과 달리,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 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온 공유재 사례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아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디자인 원리로 제시되었다(표 10 참조). 성공적 공유재 관리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공유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재가 아니라 정의된 경계가 있고,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복잡한 사용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집합적 선택 장치가 있으며, 규칙 위반자는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처벌이 있고, 갈등 발생 시 해결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하게는 자체적인 조직권이 보장되는 속성이다.

표 10.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유 자원 제도에서 확인된 디자인 원리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 공유자원 체계로부터 자원 유량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개인과 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공유 자원 자체의 경계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2. 사용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 - 자원 유량의 시간, 공간, 기술, 수량 등을 제한하는 사용 규칙은 현지 조건과 연계되어야 하며, 노동력과 물자, 금전 등을 요구하는 제공 규칙과도 맞아야 한다.
3. 집합적 선택 장치 - 실행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행 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시 활동 - 공유 자원 체계의 현황 및 사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단속 요원은 그 사용자들 중에서 선발되거나 사용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
5. 점증적 제재 조치 - 실행 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이나 이들을 책임지는 관리,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해서 위반 행위의 경중과 맥락에 따른 점증적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6. 갈등 해결 장치 - 사용자들 간의 혹은 사용자와 관리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수준의 갈등 해결 장치가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권리가 외부 권위체에 의해 도전받지 않아야 한다.

(출처: 오스트롬, 2010)

제주 해녀의 마을 어장 관리 규범은 디자인 원리의 제도적 측면에 부합하는 것 외에도 공동체적 특성이 더해진 사회 정의적 장점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해녀들의 조업은 마을의 결정에 따라 개별 채취와 공동 채취가 병행되는데, 이들의 오랜 관습적 경험을 통해 공동의 성과와 개인별 성과가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다. 상군, 중군, 하군 등으로 구성되는 해녀의 계급 체계에서 상위에 속한 해녀들은 뛰어난 조업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얻지만, 공동 채취와 생산물의 재분배를 통해 하위에 속한 해녀들의 상대적 박탈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조업의 경쟁적 성과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제주 해녀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제주 해녀들이 '아름다운 경쟁'이라 칭하는 그들의 조업 방식은 본인의 소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존 경쟁 시스템을 넘어, 동료와의 유대감과 주어진 자연 환경에 대한 책임감까지 고려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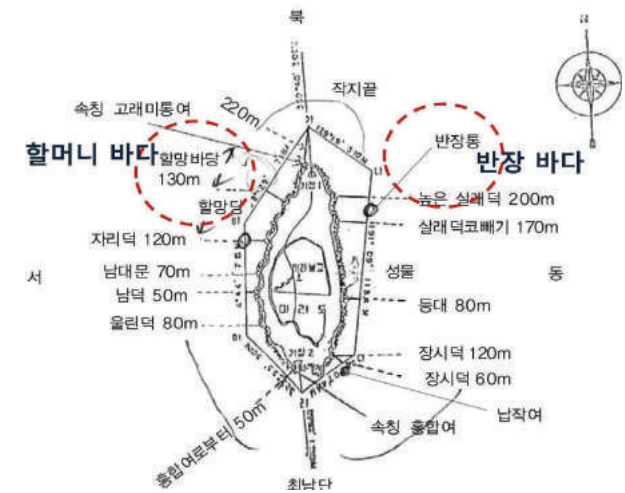


그림 22. 마라도 어장 구획도와 할머니 바다, 반장 바다 구역

(출처: 김권호·권상철, 2016)

제주도의 마을별 어장 구획도를 보면 '할망 바당(할머니 바다)'이라는 독특한 명칭의 어장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그림 22 참조). 할망 바당은 60세 이상의 물질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 해녀를 위해 물살이 약하고 수심이 얇은 바다를 양보한 어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질 능력이 뛰어난 해녀는 이곳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같은 원리로, 해녀 반장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 양보한 '반장동(반장 바다)'과 임산부 해녀들을 위해 양보한 '애기어멍 바당' 등이

마을별로 전해 내려온다. 제주 해녀는 단순히 도덕적 양심에 따른 물질적 지원을 넘어 복지와 인센티브에 있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도덕 경제를 택했다. 이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공유자원 관리 체계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강력하다. 마을공동체에는 심리적, 정서적 역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와 역할도 내재되어 있다. 전통 마을은 '이웃집 손가락 수'까지 알고 다니는 이상적인 자유 정보사회이며, 구성원 간의 소득 수준 및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거의 없는 현실적인 평등 사회이다. 이러한 동질성은 외부 집단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역으로 집단 내에서는 보다 더 밀접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곳곳에서 발견되는 '학교 바당', '기성회 바당' 등의 명칭을 가진 어장들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제주 해녀들은 특수한 목적의 어장을 지정하여 해당 어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사회발전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실제 제주도 읍·면 지역의 오래된 초등학교의 대부분은 국공립이 아닌 민립학교라 볼 수 있다. 이는 공유자원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특성을 자원의 소유와 관리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과 분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나눔과 봉사 정신은 물질적 부족 속에서도 마을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공유자원 관리 체계와 공동체 사회를 형성시켰다(그림 23 참조). 이러한 제주 해녀문화의 공동체 경제사회 사례는 특정 지역의 민속, 문화적 독특성으로 보전을 넘어 보편적 공동체 경제사회 형태로 확대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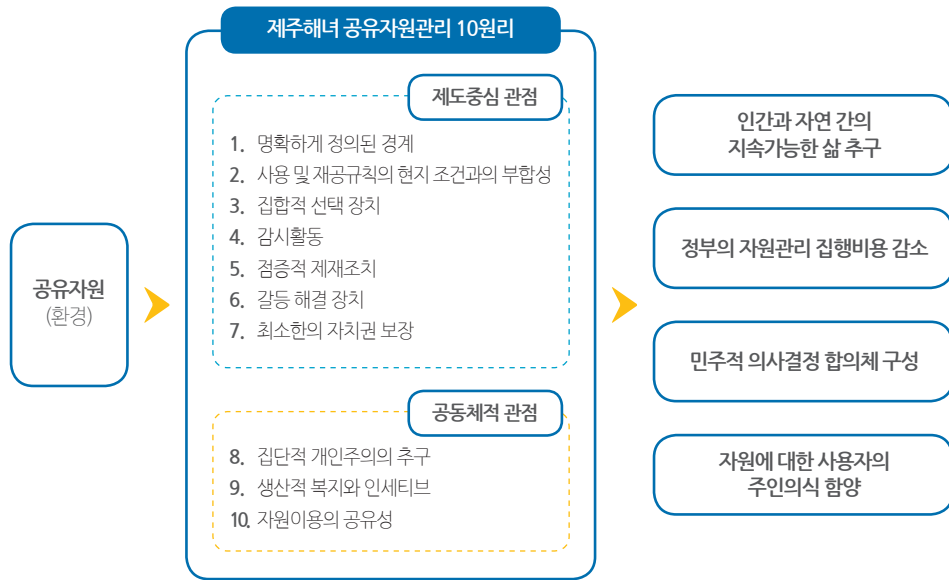


그림 23. 공유재 디자인 원리에 공동체적 원리가 더해진 제주 해녀의 공유 자원 관리
(출처: 김권호·권상철, 2016)



한라산 정상부
© APCEIU/유용례



한라산 오름
© APCEIU/유용례



한라산 기슭에서 성산일출봉
© APCEIU/유용례



성산일출봉
© APCEIU/유용례



만장굴
© APCEIU/유용례



물질을 시작하는 해녀들
© APCEIU/유용례



전통 도구를 활용한 문어잡이
© APCEIU/유용례



손으로 채취한 전복
© APCEIU/유용례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
© APCEIU/유용례



물질 작업 후 수면으로 이동하는 해녀
© APCEIU/유용례



물질작업 후 휴식하는 해녀들
© APCEIU/유용례



해녀의 물질작업으로 얻은 소라
© APCEIU/유용례



III

제주 세계유산 수업 가이드

1. 제주 세계유산교육의 영역
2.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1: 제주 세계자연유산
3.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2: 제주 해녀문화



III 제주 세계유산 수업 가이드

세계유산 수업에서는 주제 기반 통합적 접근, 현장체험 활용, 문제해결학습 등의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주제 기반 통합적 접근 수업

세계유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탐색하고 인류의 유산으로서 지니는 탁월한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주제 중심의 다학문적 통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현장체험학습 활용 수업

현장 체험을 통해 세계유산 입지 지역의 지리적·인문적 환경을 세계유산과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세계유산을 직접 관찰하고, 오감으로 느낌으로써 세계유산의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문제해결학습 활용 수업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유산의 현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문제해결학습은 세계유산의 현재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보호/보존의 방안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학습방법이다.

이 수업 가이드는 제주의 세계유산을 소재로 하며,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를 포함한다.

이 수업 가이드의 대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이다.

이 수업 가이드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규수업 및 비정규수업은 물론, 방과 후 수업, 자율학년제(학기제) 수업, 지역사회 청소년센터 수업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1. 제주 세계유산교육 영역

1)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2) 제주 세계유산교육의 방향

- 본 수업은 제주지역의 세계유산을 활용하여 세계유산의 생태학적, 미학적 가치, 그리고 인류의 탁월한 지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본 수업에서는 세계유산교육을 통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보호·보존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며, 궁극적으로는 함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지향한다.
- 본 수업에서는 주제기반 다학문적 통합적 접근과 현장체험 활용, 그리고 문제해결학습을 통하여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목표가 균형 있게 성취될 수 있게 지도한다.

2.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1

학습 주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1) 개요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학습 목표	인지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해한다. 세계유산으로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파악한다.
	사회·정서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행동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세계자연유산을 책임있는 자세로 방문하고 감상하고 조사한다.
학습유형	주제중심 통합적 접근, 현장체험학습 활용, 문제해결학습 활용	
장소	교실, 컴퓨터실,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역	
자료	활동지,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사진, 그림, 문헌자료	

2) 학습내용 및 활동계획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생각 열기	[세계유산 관련 자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제시: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제시 사진에 등장한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공유 개인적 경험과 연계 	자료: 세계유산 관련 사진, 영상 자료
	학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의 방안 탐색 	
전개	개념 정립	[활동 1] 세계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자연유산 사례 찾기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알아보기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이해하기 	유의점: 개인별 세계자연유산 사례 찾기 - 수업참여자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배열 후 종합, 분류하여 개념 정의하기
	사례 탐색	[활동 2]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살펴보기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다양한 가치 이해하기 [활동 3]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현장 탐방/조사/경관미 감상하기 	자료: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사진, 텍스트 자료, 홈페이지 활용 유의점: 본 활동에서는 다학문적 통합적 접근, 현장체험이 활용될 수 있음.
	심화 실천	[활동 4]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보존 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홍보/보존 활동 계획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홍보/보존 활동 전개 	자료: 현장체험활동 자료 유의점: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보존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영상, 신문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할 수 있음. 특히, 전 세계인이 공유, 보존할 가치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성함.
정리	수업 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중 발견한 자신만의 지식, 가치, 행동 변화를 표현하는 댓글 게시 - 붙임 종이 사용 	학습자 개인의 변화를 표현,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속적 관심과 실천을 유도함.

3) 수업에서 주안점

- ①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교육을 활용하여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지질학적, 경관적 가치를 인식하고, 나아가서 현재의 세계인과 미래가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의 의미와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보존의 방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하고 실천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 ②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측면에서,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해하게 한다.
- ③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 현장체험활동, 문제해결학습 그 이외 다양하게 학교 현장,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적정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 주요 수업 자료

유네스코 세계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nhcenter.jeju.go.kr/index.php>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index.htm>
 문화재청, 2010, 한국의 세계유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

5) 수업 실행

활동 1 - 세계자연유산

1. 세계자연유산 알아보기

○ 세계에는 2018년까지 세계자연유산 1209점이 분포되어 있다. 세계유산지도 또는 세계유산 목록을 활용하여 아래의 20점을 포함하여 세계자연유산을 세계지도 위에 표시해 보자.

세계자연유산	당사국	세계자연유산	당사국
이시망갈리스 습지공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브 모레바다	아이슬란드
말라위 호수 국립공원	말라위	사카르마타 국립공원	네팔
노르웨이 서부 피오르-에이랑에르피오르와 네리위피오르	노르웨이	테 와히포우나무 공원	뉴질랜드
바이칼 호	러시아	시안 카안 생물권 보전 지역	멕시코
곤드와나 열대우림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드매 자연 보호 지역	세이셸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미국	신하라자 삼림 보전 지역	스리랑카
하롱베이	베트남	알프스 융프라우 알레치	스위스
중앙 아마존 보전지역	브라질	슈코치안 동굴	슬로베니아
갈라파고스 제도	에콰도르	쉬르트세이 섬	아이슬란드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	필리핀	루트 사막	이란

2.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 파악하기

○ 모둠을 정하여, 모둠별로 세계자연유산 1곳을 선택하여 세계자연유산의 등재기준과 지리적 환경과 가치를 찾아보자.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	지리적 환경과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환경(위치, 지형, 기후 등) • 가치 (경관미, 생물학적 다양성, 지질, 생태환경 등)

3. 세계 자연유산의 가치 이해하기

모둠별로 발표한 세계자연유산을 등재 기준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자.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			
	(VII)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VIII)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사례	(IX)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사례	(X)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전을 위해 중요한 자연서식지 포함

학생 읽기 자료

세계자연유산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중 자연유산은 경관, 지질, 생물다양성, 생태계 가치라는 4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경관적 가치는 다른 기준과 함께 제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보유하여 완전성을 입증하고 법적, 행정적 보호제도를 포함한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자연유산으로 등재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

- ① 경관(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 ② 지질(viii):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 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 ③ 생물다양성(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 ④ 생태계 가치(x): 과학이나 보전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받고 있는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함.

4.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연습

지역사회 또는 여행 경험지역 중 1곳을 선택하고,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기준을 적용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활동지	세계자연유산등재 신청하기
신청 대상	
등재 신청일	
소재지	
총족 기준	경관(), 지질(), 생물다양성(), 생태계 가치()
신청 대상 (지형/지물) 특성 소개	
등재 이유 (등재 기준 활용)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 등재



1 국가가 세계유산협약을 조인하고, 자국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토에 있는 문화유산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잠정목록으로 작성한다.



3 당사국이 잠정 목록에서 후보지를 선택한다.

4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5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뒤, 평가를 위해 IUCN 또는 ICOMOS에게 보낸다



6 전문가들이 후보지를 방문하여 유산의 보호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7 IUCN 또는 ICOMOS가 문화 및 자연유산 기준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평가한다.



8 IUCN 또는 ICOMOS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9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World Heritage Bureau)이 신청서와 평가내용을 검토 한 뒤,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10 21개 협약 당사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 보류, 또는 기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출처: UNESCO(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2007)



유산(Heritage)

유산은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계승되어 현재 우리 곁에 있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이다. 유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삶과 영감의 구체적 실례이자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장소와 사물이다. 그런 장소와 사물들은 곧 우리의 기준점이자, 정체성이다. 이런 유산은 대개 우리 선조들의 삶을 반영하며, 그것을 보존하려는 구체적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무엇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고 있을까? 무엇을 보존해야 할까?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등을 고려하면 유산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세상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다. 여러분의 고장에는 고고 유적과 암벽화 유적 또는 교회 및 기타 종교적이거나 신성한 장소, 역사적 도시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런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숲이나 거대한 해안 지역 근처에 살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곳을 자연유산이라고 부른다. 이런 유산은 모두 쉽게 옮길 수 없는 부동산 문화재(immovable heritage)이다. 동전이나, 식물 표본, 그림, 동상 또는 고고학적 유물은 쉽게 장소를 옮길 수 있는 동산 문화재(movable heritage)이다.

세계유산

1) 세계문화유산 협약은 왜 맺게 되었을까?

세계유산 협약의 시작은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집트 정부는 나일강의 범람을 조절하고자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댐이 건설되면 아부심벨 신전을 비롯한 이집트 누비아 유적지가 수몰되어, 고대 세계문명의 발상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수력 발전과 관개용 댐이 필요하였다. 이 상황을 큰 위기로 본 유네스코는 이집트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결정하고, 신전을 둘러싼 산 전체를 강 상류로 옮기는 범세계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8년간 수많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신전을 둘러싼 산 전체를 많은 조각으로 분리하여 강 상류의 안전한 곳에 옮겼고, 다시 조립하였다. 이런 유네스코의 활동이 국가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감동적인 사례로 전해지며 국제사회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계문화유산 협약의 시작이다.



2)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이 이루어진 결과, 유네스코는 비정부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도움을 받아 세계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초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세계보전연맹이라고 알려진 비정부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자연유산 보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하나의 법적 장치 속에 결합하자는 제안을 한다. 이 제안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 상정되었고, 이것이 20년 후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로 이어진다. 이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스톡홀름 회의는 유네스코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공히 보전하기 위한 협약의 완성이라는 임무를 위임했다. 유네스코는 유엔 체제 내에서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전문기관이었기 때문이었다.

스톡홀름 환경회의가 열리고 몇 달 후인 1972년 11월 16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확인하고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명시된 최초의 공식적인 국제적 수단이었다. 이 협약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도덕적, 재정적 책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의 보호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를 포함
- 이동할 수 없는 유산
-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산의 보호
- 세계유산 보호는 단합된 국제적 활동

(출처: UNESCO, 1972)

활동 2 -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1.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살펴보기

-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살펴보고, 그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찾아보자.

활동지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살펴보기
신청 대상	
등재 신청일	
소재지	
충족 기준	경관(), 지질(), 생물다양성(), 생태계 가치()
신청 대상 (지형/지물) 특성 소개	
등재 이유 (등재 기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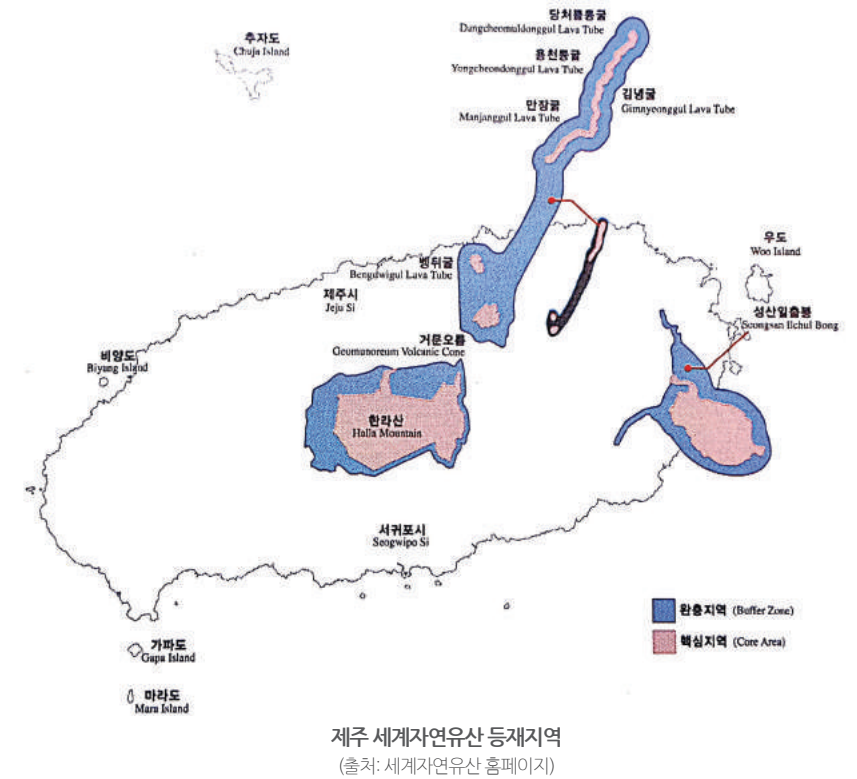
* 참고 누리집: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nhcenter.jeju.go.kr/index.php>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index.htm>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자료 1

● 제주 세계자연유산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된 곳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은 지질학적 특성과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주어 이들의 보전 노력과 더불어 교육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 '성산 일출봉' 그리고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를 각각 살펴보자.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자료 1

● 한라산

세계 10,000개의 화산 중 대부분은 용암이 흐르며 형성되는 순상화산(shield volcano)이거나 폭발 물질과 용암의 혼합물로 구성된 성층화산(strato volcano)이다. 순상화산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와이처럼 돔 형태를 하고 있다. 성층화산은 보통 안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후지산처럼 더 가파른 원추 모양을 가진다. 이 두 형태 중 순상화산은 지난 1 만년 동안 분출했던 1,500개의 화산 중 10퍼센트로 드문 편이다. 대다수의 순상화산은 해저, 띠 형태의 섬 또는 지각이 깊이 가라앉은 곳에서 형성되어, 대륙 지각에 위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제주도는 대륙판에 형성된 커다란 방패 모양 순상화산으로, 안정된 대륙판 가장자리에 있는 해양 환경에서 마그마 분출구(hot spot)를 형성한 지형 형성의 세계적 희귀 사례다.



한라산 남서 사면 영실 지역의 주상절리
(출처: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자료 1

●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은 제주 화산 연안의 화산 지층에서 발견되는 응회암 화산의 특징을 지니는데, 각력암, 응회암, 층상 응회암 및 침상 응회암 등으로 구성된 이 구조물은 늦은 홍적기 시대(12만 ~ 40만 년 전)에 얇은 해저에서 분화로 형성되었다. 모습은 직경이 570m에 달하는 사발 모양의 정상 분화구가 있는 179m 높이의 성과 비슷해 것이 특징적이다. 성산 일출봉은 마그마가 물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폭발적인 분출에 따라 형성된 화산으로,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거의 모든 외부 구조가 침식되어 내부 구조와 성층화를 드러내는 절벽이 나타나는 독특한 지형이다.



성산 일출봉
(출처: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자료 1

●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제주도의 가장 중요하고 특색 있는 화산 지형은 대다수의 평가자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용암 동굴계다. 이들 용암 동굴은 공기 배출 활동이 멈추고 액체 용암의 일부가 하향 경사를 따라 흐르면서 길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용암 동굴은 점성이 매우 낮고 높은 온도를 지니는데, 표면이 얇게 굳어도 내부로는 높은 온도의 용암이 계속 흐르며 점진적으로 용암의 높이가 낮아져 동굴이 만들어진다.

동굴 내부에서는 계단 모양의 층을 통해 동굴 내에서 흐르던 용암의 높이가 여러 차례 변화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동굴의 천장 가까이에는 돌고르름처럼 생긴 용암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용암은 상당히 묽은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거문오름 주변의 용암 동굴들은 긴 길이, 방대한 부피, 복잡한 통로 구성, 잘 보존된 내부 용암 특징, 풍부하게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는 2차 탄산염, 접근의 용이성, 과학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점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된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를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특색 있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은 장식물과 탄산염 퇴적물이다. 방해석(calcite)과 같은 아주 작은 퇴적물은 용암 동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만 밀도와 다양성은 제주의 용천굴과 당처물 동굴에 훨씬 못 미치며 제주 용암 동굴의 종유석 규모는 다른 사례보다 훨씬 크다. 탄산염 퇴적물은 제주도 용암 동굴 위로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이 날려 쌓인 후에 물에 용해되어 동굴 내부로 스며든 것으로 석회암 동굴과 유사한 종유석들을 만들지만 그 형성 배경은 달라 유사 카르스트(pseudo-Karst) 동굴로 불린다.



용암 동굴 내부



당처물 동굴 내부: 석회 성분이 만든 종유석

(출처: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자료 2

●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등재 연도 2007년

·등재 기준

기준 (vii) : 용암 동굴을 이미 본 적 있는 사람조차 빼어난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의 시각적 효과에 감탄한다.

동굴 천장과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탄산염 생성물이 장식되어 있으며, 탄산염 침전물은 어두운 용암 벽에 벽화를 그린 것처럼 군데군데 덮여 있어 독특한 볼거리를 연출한다. 요새 형태의 성산 일출봉 응회암은 벽면이 바다 밖으로 솟아나와 경관이 극적이다. 또한, 계절에 따라 색과 모습이 달라지는 한라산은 폭포, 갖가지 모양으로 형성된 암석, 그리고 주상 절리 절벽, 분화구에 호수 가 있는 우뚝 솟은 정상 등이 경관과 미적 매력을 더한다.

기준 (viii) : 제주도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움직이지 않는 대륙 지각판 위 열점 (hot spot)에 생성된 대규모 순상 화산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용암 동굴계 중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동굴로 동굴생성물(speleothem)이 다양한 형태로 장관을 이루며 늘어서 있다. 이는 다른 용암 동굴 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종유석 같이 부수적으로 생겨난 탄산염 동굴생성물이다. 성산 일출봉 응회암은 구조적인 특성과 퇴적 특성이 드러나는 이례적인 곳으로서 얇은 바다에서 수중 폭발한 화산 폭발 과정을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개요 : 총 면적 18,846ha 규모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천장과 바닥이 다양한 색의 탄산염 동굴생성물로 이루어지고 어두운 용암 벽으로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손꼽히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바다에서 솟아올라 극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요새 모양의 성산 일출봉 응회구(tuff cone), 그리고 폭포와 다양한 모양의 암석, 물이 고인 분화구가 있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의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유산은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의 세계유산, http://heritage.unesco.or.kr/wh/wh_ko/)

활동 3 -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탐방

1.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탐방 계획세우기

-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중 한 곳을 선정하여 방문 계획을 세워보자. 탐방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의 관찰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외적, 내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과 세계자연유산의 보존, 이용 상황을 점검해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아래 예시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탐방 계획을 세워보자.

예시 1. 탐방 계획 세우기

준비 내용	구체적인 계획
탐방 목적은 무엇인가?	
탐방 지역은 어디인가?	
탐방 지역 간 이동 경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탐방 지역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탐방 지역 관찰 및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도구(예, 사진기, 스케치북, 필기구 등)는 무엇인가?	
탐방 지역 자연유산 가치와 실태의 설명을 듣기 위해 누구(예, 자연유산해설사, 자연유산 전문가, 자연유산센터 관계자 등)를 만날 것인가?	
면담자와의 사전 예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면담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2.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현지 탐방하기

- 계획서를 토대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방문한다. 방문 전 탐방인원 제한이 있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반드시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하는 점에 유의한다.
- 현지 탐방을 하면서 세계자연유산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세계자연유산 관찰'과 '세계자연유산 보존/이용 실태 점검'으로 나누어서 탐방할 수 있다.

활동지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관찰	
	※ 제주 자연유산 ()을 탐방하여, 자연유산을 관찰해 보자.	
	관찰 항목	관찰 내용
	자연유산의 위치 (제주도 내에서)	
	자연유산의 형성과정	
	자연유산의 모습 (외부/내부) *스케치 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연유산에서 찾은 특별함 (경관미, 생물다양성, 지질, 생태계 등)	
	탐방 지역 관찰 및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도구 (예, 사진기, 스케치북, 필기구 등)는 무엇인가?	
	자연유산에서 찾은 특별함의 형성 배경 추론 (예, 자연적 생성, 인간과 상호작용 등)	
	자연유산의 제주지역, 우리나라, 세계적 가치는 무엇인가?	

활동지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관찰	
※ 제주 자연유산 ()을 탐방하여, 보존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 보자.	
점검 사항	점검 내용
자연유산은 잘 보존되어 있는가?	
자연유산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있는가?	예, 자연유산의 고의적 파괴 등
자연유산보존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가?	예, 지역주민의 이용 상황/ 지역주민의 자연유산에 대한 반응 등
자연유산의 주변 시설은 이용객의 편의를 지원하는가?	예, 주차장/길 안내 표지판/화장실/자연유산 안내문/안내원의 역할 등
우려되는 상황 또는 문제점은 있는가?	예, 이용객의 자연 훼손/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함 제공 등
자연유산 보존/이용에서 아주 우수한 사항은 있는가?	

활동주제 4 -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홍보 및 보존 활동

1.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홍보 및 보존 활동 계획하기

- 앞에서 고찰한 제주 세계자연유산 내용과 탐방에서 얻은 내용을 활용하여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전 세계인이 감상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홍보 영상 및 지속적으로 보존을 잘하자는 영상(UCC)을 만들어 보자.
 - 이 영상은 기존의 제주시나 국가에서 만드는 것과 달리 여러분의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보는 가치와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보존의 방법이 들어가도록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자.
 - 영상 제작에서 고려할 사항

<제주, 한국, 전 세계에 홍보 내용>

- 제주 세계유산이 지닌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 제주 세계유산이 담고 있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가치 (제주/한국/세계인이 공유/보존의 가치)

<보존 활동>

-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우수성이 잘 홍보되어 너무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로 몰려온다면 이 상황은 보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인가?
- 관광과 보존의 관계에서의 적절한 상황은 무엇일까?
- 많은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들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이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세계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영상(UCC)을 통해 제주 주민/한국 국민/세계인에게 가장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보존/관광이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 영상 제작하기

- 영상 제작을 모든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게 각자 역할을 분담(예: 사진 찍는 담당, 시나리오 담당, 인터뷰 담당, 영상편집 담당 등)하고, 공동의 책임을 갖도록 한다.
- 영상 제작에 충분한 시간(2주 정도)이 주어 많이 생각하고 협업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 좋다.

- 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상영하도록 한다.
- 영상을 보면서 서로의 느낀 점을 공유하고, 질문이나 칭찬의 말을 해주도록 유도한다.
- 영상은 동의를 얻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한다.

4. 세계시민의식 실천

- 앞으로 다른 국가/지역의 자연유산을 본다면 무엇을 중점으로 보고 싶은가?

- 다른 국가/지역의 세계자연유산 여행지를 선정한다면 어디인가? 여행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

3.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2

학습 주제: 제주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문화

1) 개요

제주 해녀문화		
학습 목표	인지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 해녀문화의 우수성을 파악한다. 자연과의 상호작용 결과물로서 해녀 문화의 탁월한 가치를 이해한다.
	사회·정서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변하는 사회에서 제주 해녀문화의 지속적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행동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해녀문화의 지속가능 공유방법을 찾고 주인의식을 지닌다.
학습유형	주제기반 통합적 접근, 현장체험학습 활용, 문제해결학습	
장소	교실, 컴퓨터실, 현지 지역	
자료	제주지역 해녀 관련 자료, 인류무형문화유산 자료	

2) 학습내용 및 활동계획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생각 열기	[제주 해녀 관련 자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및 동영상 제시: 제주 해녀 활동 사진, 동영상에 등장한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공유 개인적 관련 경험과 연계 	자료: 제주 해녀 사진 자료
	학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 공유 / 확산 방안 탐색 	
전개	개념 정립	[활동 1] 제주 해녀 활동의 역사/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해녀 활동 역사 찾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 찾기 인류무형문화유산 가치 이해하기 	유의점: 제주 해녀 활동 역사 관련 자료 찾기 - 참여자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배열 후 종합, 분류하여 개념 정의하기 자료: 제주 해녀 관련 사진, 텍스트 자료, 홈페이지 활용
	사례 탐색	[활동 2] 공유재와 해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의 의미와 지속가능 활용방법 이해하기 제주 해녀들의 공유재 관리 문화 탐색하기 [활동 3] 해녀와의 만남/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해녀와의 만남과 질의 	자료: 공유재 관련 자료 유의점: 본 활동에서는 다(多)학문적 통합적 접근, 현장체험이 활용될 수 있음
	심화 실천	[활동 4] 제주 해녀문화의 공유/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 공유/확산 방안 탐색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 공유/확산 활동 전개 	자료: 해녀와의 대화/질의 자료 유의점: 세계인이 공유, 보존할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 보존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영상, 신문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할 수 있음.
정리	수업 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중 발견한 자신만의 지식, 가치, 행동 변화를 표현하는 댓글 게시 - 붙임 종이 사용 	학습자 개인의 변화를 표현,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속적 관심과 실천을 유도함

3) 수업에서 주안점

- ① 제주 해녀문화 교육을 활용하여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공유의 의미와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지속가능한 보존 마련과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주 해녀문화가 지닌 공유재 문화의 가치를 명백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 현장체험활동, 문제해결학습 그 이외 다양하게 학교 현장,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 주요 수업 자료

제주해녀 박물관 <http://www.jeju.go.kr/haenyeo/haenyeo/haenyeo.htm>
 데이비드 앨런 하버, 한길언(홍경우 역), 2015, 제주 해녀, 태학사
 좌혜경, 2015, 제주 해녀, 빛깔있는 책들

5) 수업 실행

활동 1- 제주 해녀문화의 역사 / 가치 알아보기

○ 해녀 박물관(<http://www.jeju.go.kr/haenyeo/index.htm>)을 방문하여 해녀의 등장 배경과 현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제주 해녀의 등장 배경	
제주 해녀의 역사	
해녀의 하는 일	
해녀의 하는 일	

○ 숨비소리, 잠수복과 물질도구, 불턱, 출항 해녀 등 해녀와 관련된 용어를 자세히 조사해 보자.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숨비소리	
잠수복과 물질 도구	
불턱	
출항 해녀	

○ 관련 자료 및 읽기 자료, 그 이외 필요한 자료를 더 조사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인류무형문화유산 가치



학생 읽기 자료

제주 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제주도 주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족 중에 해녀가 있기 마련이므로 제주 해녀문화는 제주도민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작은 부표(테왁) 하나에 의지하여 거친 바다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해녀의 이미지는 제주도민의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런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를 제주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지정하였고 '해녀 노래'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가장 즐기는 노래가 되었다. 제주도는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화산섬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한때 제주 해녀들의 일은 각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한편, 제주 해녀는 특별히 지정된 일부 바다에서 공동 작업을 해서 얻은 이익으로 공동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학교 바당'이라 불리는 구역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공동체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를 짓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활동은 해녀와 그 공동체가 가진 연대와 조화의 정신을 증명한다. 제주 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환경 친화적인 채취 활동에 해당하므로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이지만, 호흡을 돕는 장비의 도움 없이 개인 능력의 한계만큼 물속에서 머무르면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자제가 가능하다. 공동체 전체가 해마다 잠수 일수를 결정하고 작업 시간,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의 최소 크기를 정하며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해녀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며 삶을 일구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제주 해녀와 관련된 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출처: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제주 해녀 관련 자료



제주 해안의 마을 어장과 어촌계가 분포하는 마을(간조 수심 7m이내 지역)

(출처: 제주도 해녀 박물관, 2014)



제주 해녀 관련 자료



잠수를 하러 바다로 가는 해녀



안전과 수확을 기원하는 의례

(출처: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홈페이지)



물질하는 해녀들

© APCEIU/유용례

활동 2- 공유재와 해녀 문화

1. 공유재 관리

- 읽기자료를 활용하여 공유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련하여 다음을 생각해 보자.
- 공유재는 무엇인가?
- 공유재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공유재를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학생 읽기 자료

공유재의 비극

모두가 가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양은 한정되어 있는 소비재를 공유재라고 한다. 공유재의 예로는 바다의 물고기가 있다. 바다의 물고기는 내가 잡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잡는 것은 아니지만, 희소성을 지니며 제한적이다. 이런 물고기 같은 자원을 공유재라고 한다.

사람들이 공유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어느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공동소유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고, 각 한 마리씩의 양을 사육하고 있었다. 그 목초지는 마을전체 양의 숫자인 10마리가 풀을 뜯기에 아주 적당한 크기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인구가 늘어나고 마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양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양 한 마리를 더 사육하게 되면서 다른 집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여러 마리의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한된 목초지에는 더 이상 풀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결국 양에게 먹일 풀이 줄어들어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양을 키울 수 없었으며 양털 산업 역시 망해버렸다. 즉, 사람들의 욕심이 '공유재의 비극'을 자초한 셈이다.

(출처: Garrett Hardin, 1968, 1244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2. 제주 해녀들의 공유재 관리 문화

- 읽기자료 또는 관련 자료를 더 조사하여 제주 해녀들의 공유재 관리 문화를 살펴보자.
- 제주 해녀들의 공유재 관리 문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 제주 해녀들의 공유재 관리 문화의 우수성은 무엇인가?



학생 읽기 자료

제주 해녀들의 공유재 관리 문화

제주는 지리적 특성으로 항구 발달이 미비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어선 어업이 산업화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어업은 평균 수심 15미터 이내의 제1종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안의 공동어장은 마을어장으로 불리며 어촌계의 규범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세계 여러 지역의 공유재 관리에서 나타나는 규칙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외부인들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여 마을 주민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마을 주민 내부의 갈등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의 이용에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고, 공유지 남용을 규제하는 등 마을 공유 자원을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이용하는 방식과 규범을 가지고 있다.

제주 마을 공동어장은 어장 관리를 위한 공동 작업에의 의무적 참여, 공동 비용 지출과 공동 감시 역할 담당, 권리권 양도 제한, 신입 회원의 자격 부여, 그리고 모든 일은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따라 이용, 관리된다. 마을 공동어장의 어로 형태는 공유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와 다양한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어촌계와 잠수회의 중첩적인 조직은 협력적 관계로 감수를 통해 획득되는 해초류와 패류 중, 툫과 우뚝가사리 등의 해초는 어촌계에 소속된 해녀를 포함한 모든 계원들이 공동으로, 패류는 감수들만이 채취한다. 또한, 채취물의 종류에 따라 작업을 개별과 공동으로 구분하여 수행함으로써 어장의 질서와 사회경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 공동어장의 공동체 규율은 감수들이 개별적으로는 경쟁적 소라 채취를 하면서도 어장 황폐화의 비극적 상황을 맞지 않도록 배타적인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무제한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독점과 공생이 동시에 유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어장 규율은 감수 사회의 자율적 질서이며 어장을 가꾸어 나가는 불문율로, 마을의 상황에 따라 나름의 합리적 방안을 찾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역 지식에 기초하여, 자원을 지속가능하도록 이용하고 관리하는 대표적 사례다.

제주 마을 공동어장 유지의 핵심은 총유(總有) 또는 준사유화, 즉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리는 공동체에 속하지만, 그 재산의 사용과 수익의 권리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 속하는 개인주의적 공동의 소유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에서 어촌계-잠수회에 부여한 마을 공동어장의 관리 권한은 회원들이 자원과 환경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입 중 일부를 공동 수익으로 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규범으로 나타나 공유재 비극론에서 제시하는 사유화보다 지속가능성이 높고 바람직한 경제-사회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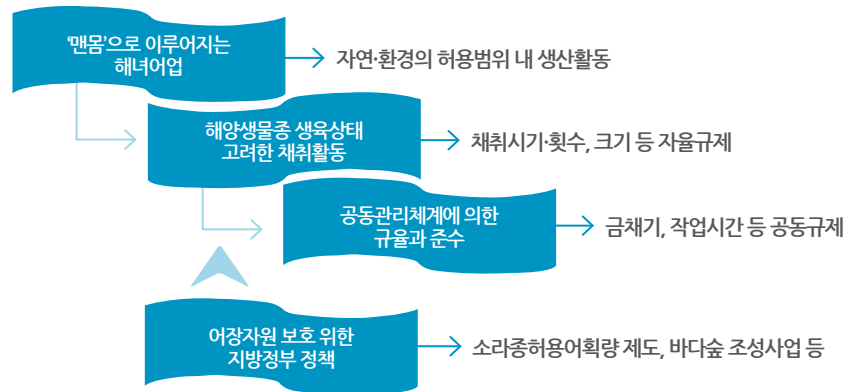
학생 읽기 자료

해산물의 금채기와 금지 채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툇	~1/31										10/1 ~	
우뭇가사리	~ 4/30										11/1 ~	
소라						6/1 ~ 8/31						
해삼							7					
미역									9/1 ~ 11/30			
전복										10/1 ~ 12/31		
감태류	1/1 ~ 12/31											
오분자기												
성게												

*연중 포획금지: 전복 채장 10cm 이하, 소라 채장 7cm 이하, 오분자기 채장 3.5cm 이하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8)

해녀 어업의 생산방식과 지속가능성 개요



활동 3- 해녀와의 만남/대화

○ 제주지역의 해녀를 직접 만나, 해녀와 대화를 통해(또는 해녀들의 작업 현장을 찾아 해녀들의 작업 현장을 살펴봄) 제주 해녀문화를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제주 해녀의 해산물 채취 작업 활동과 제주 해녀문화 유지 상황을 조사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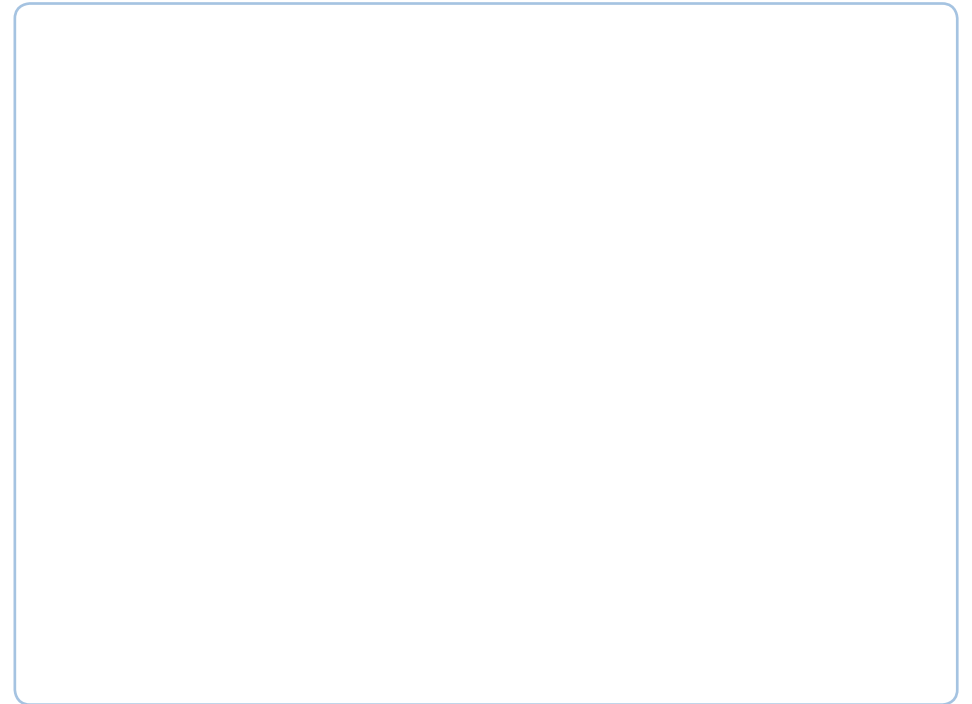
질문		조사 내용
작업 활동	연중 작업 시기는 언제인가요?	
	무엇을 주로 채취하나요?	
	채취 해산물, 채취시기, 채취 장소 등은 어떻게 정하나요?	
	채취한 수확물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공동 관리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해산물 채취 활동에서 공동 관리를 하여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유 / 지속	해녀의 삶, 에피소드 등을 들려주세요.	
	해녀로서 보람/자부심은 무엇인가요?	
	해녀로서의 삶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주 해녀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제주시/국가적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주 해녀문화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 제주 지역민/관광객이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활동 4- 제주 해녀의 공동체 문화 공유/확산

○ 다음의 제주 해녀문화에 나타난 10가지 공유자원 관리 원리를 활용하여 제주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여러 가지 방법(스토리텔링, 동영상, 포스터, 역할극, 소개글 등)으로 표현해보자.

관리 원리	내용
일반적 공유자원 관리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 공유 자원 체계로부터 자원 유량을 인출할 수 있는 개인과 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공유 자원 자체의 경계도 명확하게 정의됨. • 사용 규칙 - 자원 채취 시간, 장소, 활용 기술, 채취 수량 등을 현지 조건에 부합하게 적용함. • 실행 규칙 제정에 구성원 모두의 참여 • 감시 활동 - 공유 자원 체계의 현황 및 사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 • 점증적 제재 조치 - 실행 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이나 이들을 책임지는 관리자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해서 위반 행위의 경중과 맥락에 따른 점증적 제재 조치를 받음. • 갈등 해결 장치 - 사용자 간의 혹은 사용자와 관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수준의 갈등 해결 장치를 이용함. •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가 외부 권위체에 의해 도전받지 않도록 보장됨.
제주지역 특유의 공동체문화 형성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 개인주의의 추구 - 해녀들의 조업은 마을의 결정에 따라 개별 채취와 공동 채취가 병행되는데, 이들이 오랜 관습적 경험을 통해 공동의 성과와 개인별 성과가 갈등 없이 공존함. • 생산적 복지와 공동체 결속 강화 - 해녀들은 나이, 경력, 숙련 등에 따른 조업 능력 차이가 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나 공동체 봉사자를 위해 바다의 일정 영역을 할당해 주는 규범은 결과의 균등, 배분과는 다른 스스로 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도록 배려해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부담감을 최소화 함. • 자원이용의 공유성과 미래 지향성 - 공동 채취와 생산물의 일부를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건립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소유와 관리를 넘어 사용과 분배에서 공동체 유지와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보여줌.

○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제주 해녀들은 특수한 목적의 어장을 지정하여 해당 어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사회발전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실제 제주도 읍·면 지역의 오래된 초등학교의 대부분은 국공립이 아닌 민립학교라 볼 수 있다. 이는 공유자원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특성을 자원의 소유와 관리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과 분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나눔과 봉사 정신은 물질적 부족 속에서도 마을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공유자원 관리 체계와 공동체 사회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제주 해녀문화의 공동체 경제사회 사례는 특정 지역의 민속, 문화적 독특성으로 보전을 넘어 보편적 공동체 경제사회 형태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주 해녀문화가 지닌 배려, 정의로움, 공동체 문화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면 어떤 지구촌 사회가 펼쳐질지 상상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보자.





IV

세계유산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IV 세계유산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세계유산은 자연사와 인류사가 만든 유산으로 보존과 보호를 통해 미래세대로 이어주어야 할 가치가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그리고 인류무형 문화유산을 지정하여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세계유산교육이다. 그 노력의 출발은 '세계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1994)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유산교육은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자연과 인류가 남긴 소중한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내고 있다.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교집합을 지니고 있다. 세계유산은 세계시민교육에 자연과 인류가 낳은 유산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세계유산교육은 글로벌 마인드, 자연적·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관점, 지속가능성, 세계 쟁점의 관심과 참여 등이라는 세계시민교육의 테제로 이어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세계유산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이어주는 접점에서 다양한 수업방법, 즉, 주제 기반 통합적 수업방법, 현장체험학습 활용 수업방법, 문제해결학습 활용 수업방법을 적용한 모듈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교교육에서 교과 및 교과외 활동을 실행하면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수업안이다. 교사들은 본 수업안을 탄력적으로 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교와 세계유산의 현장, 학습자의 상황과 조건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기에 이 책에서 제안한 수업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

세계유산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유의할 점도 있다. 가령, 수업 전후를 포함한 과정에서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한 관점과 입장의 상충 상황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대응할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안팎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 입장에 따른 가치의 상충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유산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 그리고 개인 정체성과 공동체 정체성의 상충이다, 교사는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의 상충을 유념해서 수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계유산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상호충돌을 조화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은 민족이나 국가 자산이라는 관점과 자연과 인류가 만든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인류 자산으로 보는 입장이 충돌할 수 있다. 세계유산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은 두 입장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민족이나 국가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유산이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선 보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가 국내분쟁이나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개발이라는 의제에 함몰되는 경우 등에는 세계유산이 국가나 민족자산으로도 지켜지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 인류가 만든 유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세계유산을 수업을 할 때 그 가치의 상충을 조화롭게 극복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유산을 목적적 가치로 보는 관점과 수단적 가치로 보는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의 생태적, 문화적, 경관적, 지질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그 자체로서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세계유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한번쯤 보고 싶은 대상임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유산을 그 자체로서 소중한 목적적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과 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관광이나 여행으로 상품화하고자 하는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 상충할 수 있다. 교사가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세계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수업으로 실시하였으나, 학생들은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세계유산을 자신이 여행하고 관광을 할 버킷리스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유산과 관광은 상호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지구상에는 관광인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관광 수요의 증가는 세계유산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미치고 있다. 여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유산을 지나치게 수단화하고 대상화하여 원래의 모습을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세계유산을 관광하더라도,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나 민족, 국가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혜를 갖추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연계적 이해를 통해, 세계유산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류는 빠른 속도로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며 이런 과정에서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서의 개인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달리하면서 살아간다. 여기서 인간은 개인 정체성과 공동체 정체성 사이의 상충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다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필연성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체성에 더 깊은 의미를 두느냐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는 데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유산교육은 모든 인류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구공동체라는 관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전지구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세상의 주체로서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소홀히 다룰 수도 있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주체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임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화라는 초개인적, 초국가적 공동체 담론으로 인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소홀히 다루지 않길 바란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은 국가의 문명발달 정도에 따라서 그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명의 발달이 더딘 아프리카의 공동체 정신인 우분투(Ubuntu)는 지구 공동체의 갈등, 분쟁,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도 학생들이 세계유산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자신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게끔 이끌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리즘(globalism), 홀리스틱 접근(holistic approaches)과 변혁적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생들이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교육을 넘어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제주의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후, 이 수업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방식으로는 제주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유산이나 세계 각지를 여행하거나 방문하면서 경험하는 유산들로의 학습경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로컬(local)에 존재하는 세계유산의 콘텐츠를 통하여

글로벌(global)로의 확장을, 그리고 글로벌의 수준에서 학생들이 살아가는 로컬로의 사고와 실천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은 로컬과 글로벌이라는 공간적 틀을 넘나들면서 유연적 사고와 참여를 행하기 좋은 교육 콘텐츠다. 특히, 21세기 사회는 세계화의 연장선상에서 그간의 세계화가 다소 일방적인 방향이었던 데 반해, 오늘날에는 세계와 로컬 간, 지역 간, 국가 간, 시민 사회 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작용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김다원 외 3인, 2018, 32). 그래서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리즘(globalism)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문화유산교육은 자연과 문화가 남긴 유산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지역 환경과 지역사회에서 학습 과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APCEIU and arts~ED, 2016, 42), 세계유산의 분포장소를 살펴보는 것은 세계유산을 글로벌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세계자연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면서 홀리스틱 접근(holistic approaches)을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자연유산은 그 자체가 가지는 경관적 가치, 지질학적 가치, 생태학적 가치와 다양성의 가치가 있다. 이 가치들은 그 자연만의 독특함(unicqueness)을 갖게 하고, 이것이 자연적 다양성을 낳는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주민들이 그 자연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정신, 종교, 사고, 역사, 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아 정체성을 낳는다. 이 정체성은 스케일(scale)의 범주 면에서 다층적으로, 공간적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다양성, 자연적 다양성은 개인, 자국, 자문화, 자민족 등의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앞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등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세계시민성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류는 똑같은 기본 욕구를 가지나 그것에 부응하는 매우 다른 방식을 가진다. 사회적 성, 문화, 계급, 국적, 종교, 민족, 언어와 계층의 차이는 이런 변화를 설명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습자는 자신이 가진 정체성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한 학습자는 다른 정체성과 문화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고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Oxfam, 2015a).

여기서 중요한 활동은 다양한 관점으로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이다. 하나의 관점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다르게 세상을 보려는 태도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산의 홀리스틱 접근을 위해서는 유형유산인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인 인류무형문화유산과의 연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유형의 유산이 역사, 문화, 자연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홀리스틱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글로벌 이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시민교육은 어느 수업방법을 사용할지라도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세계유산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 세계유산을 통하여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교육 주체로 서게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 수업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수업이 과정 중심적이며 문제해결 중심이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안한 수업안은 실행 단계를 제시하고, 그 단계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수행할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동료와 협동·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거나 지역사회의 문화 및 자연 해설사 혹은 전문가들과 같은 자원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면서 창의적 집단지성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과정별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신장하고 책임의식을 느낄 것이다.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은 변혁적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은 세계시민교육의 소재로서 다양한 교육상황을 제공해준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지향한다.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유산에 관한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을 지나치게 자신의 유산이나 자국의 유산으로 강조할 경우 지역중심주의적 사고나 자문화중심주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면서 자기중심, 전통, 편견, 지나친 우월성 등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은 지역의 세계유산과 다른 지역의 세계유산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여 세계유산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하여 개인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는 방향의 교육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이 변혁적 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변혁적 교육은 기성세대의 가치체계와 규범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학습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끈다(한경구 외 3인, 2015, 39).

변혁적인 사고는 세계시민의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생활 속에서 도전 정신을 갖고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갖추도록 하는 틀이다. 학습자가 세계화된 사회와 경제에 충분히 참여하고, 학습자가 물려받은 세계보다 더욱 공평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의 계발이 변혁적인 것이다(Oxfam, 2015b). 이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은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정의와 평등, 세계 쟁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 가치체계, 강대국 중심의 세계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비판적 사고 기능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주요 담론에서 제시된 가설과 세계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소외되어 불평등을 경험하는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한경구, 41).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 비판을 하며 더 정의로운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유산을 통한 세계시민교육도 좀 더 균형감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을 세계패권주의나 문화적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정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UNESCO, 2015, 19) 교육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순원·김현덕·이경한·김다원, 2017, 국제이해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교육사회사적 연구, 교육학연구, 55(3), 287-314.
- 김권호·권상철,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제주 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49-63.
- 김다원·이경한·김현덕·강순원, 2018,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홀리스틱 페다고지 모형 개발, 국제이해교육연구 13(1), 1-40.
- 김현호·문현식·효정, 2015, 제주 해녀 문화 대중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 김현욱·김정민, 2014, ESD 관점을 통한 초등학교 세계유산교육의 접근 가능성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1), 353-371.
- 문화재청, 2010, 한국의 세계유산, 놀와.
- 안미정, 2008 제주 감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스트롬(윤홍근·안도근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코리아(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기획 번역), 2017,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문화재청.
- 이지혜·김미경·신동희, 2016, 세계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 경향과 가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409-432.
- 이혜은, 세계유산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세계유산(국립제주박물관 편), 서경, 13-32.
- 제주도, 1996, 제주의 해녀.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4, 제주 해녀.
-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해녀 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 한경구·김종훈·이규영·조대훈, 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방안, APCEIU.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제주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도 지질여행.
- 허권, 2012, 세계유산의 국제이해교육의 가치, 국제이해교육연구, 7(1), 1-38.

참고 문헌

- APCEIU and arts~ED, 2016, Bridging Global Citizenship and World Heritage: a Teachers' Guidebook,
- Cabezudo, A. 2013. Integration of Global Dimension into Citizenship Education.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Garrett, H.,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 IUCN, 2007,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Republic of Korea, Evaluation Report.
- K-Heritage, 2017, Haenyeo: 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 한국문화재단.
-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A Candidate for World Heritage Inscription.
- Oxfam, 2015a, Global Citizenship in the Classroom: A Guide for Teachers, Oxfam.
- Oxfam, 2015b,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Oxfam.
-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aris, 16 November 1972 UNESCO 총회.
- UNESCO(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2007,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UNESCO, 2002,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to Know, Cherish and Act, Paris: UNESCO).
- UNESCO, 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aris: UNESCO,
- UNESCO(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 번역),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 제주세계자연유산, <http://jejuwnh.jeu.go.kr/main.do>
- 해녀박물관, <http://www.jeu.go.kr/haenyeo/index.htm>
-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s://ich.unesco.org/en/convention>
-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https://whc.unesco.org/en/conventiontext>

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

기획·편집 _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문화홍보소통실

연구진 _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연구책임자)
권상철 (제주대학교 교수)
김다원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이선영 (서울 양천초등학교 교사)
김광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김중훈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사진 _ 유용례 (책 표지 등)

발행일 _ 2018년 12월
펴낸곳 _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_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문의처 _ ccp@unescoapceiu.org
디자인·인쇄 _ ㈜디자인프리즘(02-2264-1728)

※ 이 책의 글과 사진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